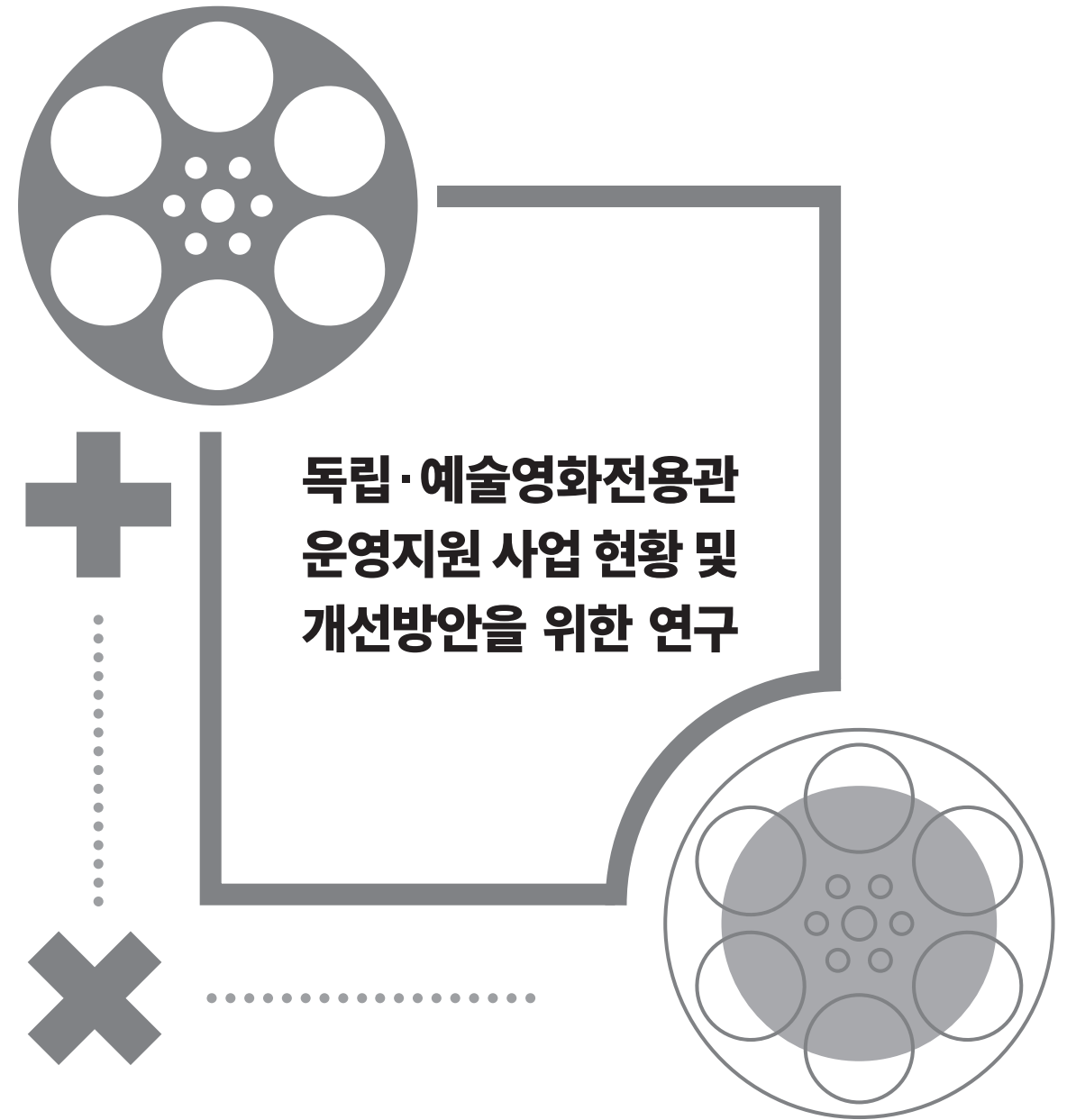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 CONTENTS

<b>제1장</b>	<b>연구의 목적 및 방법</b>	<b>8</b>	<b>제4장</b>	<b>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성과와 문제점</b>	<b>58</b>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4.1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성과	59
1.2	연구의 내용	9	1)	독립·예술영화의 안정적인 상영기반 마련	59
1.3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방법	10	2)	상영공간의 지역적 확대	59
			3)	지역의 영화 문화 다양성 확보	60
			4)	클래식영화전용관을 마련하여 고령자 문화 복지 확대	60
			5)	기획, 프로그래밍의 강화	60
<b>제2장</b>	<b>독립·예술영화 시장 환경변화 및 현황</b>	<b>12</b>	4.2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문제점	61
2.1	한국 영화산업 및 시장 환경의 변화	13	1)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낮은 예산	61
1)	2021년 한국 영화산업 및 시장 환경의 변화	13	2)	전용관 설립 지원 없음	63
2.2	2021년 영화시장 - OTT와 플랫폼의 확대 및 콘텐츠의 확대	16	3)	인센티브 제도의 허점	63
			4)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서울과 지역의 격차 심화	64
			5)	지원 극장 수 부족	65
<b>제3장</b>	<b>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현황</b>	<b>22</b>	6)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재정 악화 해소 방안 필요	66
3.1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26	7)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작은영화관 지원 사업, 시네마테크 전용관 지원 사업,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사업 시스템의 일원화 필요	66
1)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역사(略史)	26			
2)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내용	30	<b>제5장</b>	<b>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해외 사례 분석</b>	<b>68</b>
3)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 현황	32	5.1	프랑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69
4)	지역별 독립영화전용관 분포	39	5.2	독일 극장 지원사업	74
3.2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40	5.3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의 지원 기금	76
1)	예술영화전용관의 운영 지원 사업 역사(略史)	40			
2)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내용	41	<b>제6장</b>	<b>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선 방안 제안</b>	<b>78</b>
3)	예술영화전용관의 운영 현황	44	6.1	단기적 개선 방안(2023년 사업계획 반영)	79
4)	지역별 예술영화전용관 분포	56	1)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평가지수 개선	79
			2)	시설 개보수 및 공간 개선 지원	81
			3)	지역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한 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원	82
			6.2	중장기적 개선방안(2023~2033년 로드맵) 제안	82
			1)	설립지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100개 설립 목표	83
			2)	영화할인권 사업을 전용관 지원 사업으로	85
			3)	영화관에서의 영화 교육의 추진	86
			4)	공공라이브러리 구축 및 운영	90
			<b>제7장</b>	<b>결론</b>	<b>92</b>

## 표 목차

[표 1]	최근 6년간 한국영화산업 결산	13
[표 2]	2021년 지역별 비밀티/단관 영화관 분포	14
[표 3]	인구 10만명 당 스크린 수 (2021년 기준)	15
[표 4]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추이 (2010~2021)	18
[표 5]	2022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현황	23
[표 6]	지역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수	25
[표 7]	전체 극장 대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현황 (2021)	26
[표 8]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현황 (2017년~2021년)	27
[표 9]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현황 2008~2012	28
[표 10]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현황 2013~2021	28
[표 11]	독립영화전용관 2017년 운영(상영) 결과	32
[표 12]	독립영화전용관 2018년 운영(상영) 결과	33
[표 13]	독립영화전용관 2019년 운영(상영) 결과	33
[표 14]	독립영화전용관 2020년 운영(상영) 결과	34
[표 15]	독립영화전용관 2020년 티켓판매율	34
[표 16]	독립영화전용관 2021년 운영(상영) 결과	35
[표 17]	독립영화전용관 2021년 티켓판매율	35
[표 18]	아리랑시네센터 지원 현황	36
[표 19]	인디스페이스 지원 현황	37
[표 20]	인디플러스 포함 지원 현황	37
[표 21]	광주독립영화관 지원 현황	37
[표 22]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지원 현황	38
[표 23]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지원 현황	38
[표 24]	씨네인디U 지원 현황	39
[표 25]	지역별 독립영화전용관 분포 현황	40
[표 26]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규모	42
[표 27]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현황 (2017년~2021년)	43
[표 28]	2021년도 수도권 및 지역의 지원금 비율	44
[표 29]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내역 목록 (2014년~2021년)	44
[표 30]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 현황	49
[표 31]	광주극장 지원 현황	49
[표 32]	더숲 아트시네마 지원 현황	49
[표 33]	대전아트시네마 지원 현황	50
[표 34]	라이카시네마 지원 현황	50

[표 35]	씨네아트 리즘 지원 현황	50
[표 36]	아트나인 지원 현황	50
[표 37]	아트하우스 모모 지원 현황	51
[표 38]	안동중앙시네마 지원 현황	51
[표 39]	영화공간주안 지원 현황	51
[표 40]	에무시네마 지원 현황	51
[표 41]	인천미림극장 지원 현황	52
[표 42]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지원 현황	52
[표 43]	KU시네마테크 지원 현황	52
[표 44]	필름포럼 지원 현황	53
[표 45]	헤이리시네마 지원 현황	53
[표 46]	영화극장 지원 현황	53
[표 47]	2021년 예술영화전용관 프로그램 일람	53
[표 48]	지역별 예술영화전용관 분포 현황 (2021년)	57
[표 49]	연간 독립·예술영화 평균 개봉편수	60
[표 50]	독립영화전용관 지원금 추이 (2017~2021)	61
[표 51]	예술영화전용관 지원금 추이 (2017~2021)	61
[표 52]	전용관의 의무상영일수 달성률 (2021년)	62
[표 53]	수도권과 지역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수 비교	65
[표 54]	프랑스의 영화산업 지원 방식	69
[표 55]	프랑스의 극장, 스크린, 좌석수 현황	70
[표 56]	2021년 프랑스 예술 및 실험 영화관 지원금 현황	73
[표 57]	2020년 현재 전국 도서관 수	84

## 그림 목차

[그림 1]	2018년과 2020년 독립예술영화 관람 경로 비교	16
[그림 2]	독립·예술영화 개봉 편수 추이 (2010~2021)	18
[그림 3]	한국 독립·예술영화 점유율 추이 (2014~2021)	19
[그림 4]	지역별 독립영화전용관 분포	39
[그림 5]	지역별 예술영화전용관 분포	56
[그림 6]	극장 및 상영 관련 영진위 사업 추이	67
[그림 7]	프랑스 극장 수 변화 추이 (2010~2020)	71

※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Korean  
Film  
Council

## 제1장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 01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2002년부터 시작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20년 동안 추진되어왔음. 2008년에 시작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되어 왔음. 각각의 전용관 지원으로 시작한 이 두 가지 사업은 지원하고 있는 극장이 2022년 현재 30여개 극장까지 증가하였고, 5개 광역시, 6개도 등 전국으로 지역도 확대되었음.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목적은 산업 논리에 소외되고 있는 독립, 예술영화가 안정적으로 배급, 상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극장에게 독립, 예술영화 상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목적이었음. 또한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객을 확대하여 독립예술영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 있음.

사업 초기와 달리 2022년 현재, 코로나19 및 OTT 플랫폼의 확대 등 독립예술영화 시장 환경은 변화하였고, 이 변화된 환경에서 독립·예술영화의 안정적인 배급 기반 마련 및 관객 확대라는 지원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본 보고서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지원사업의 장단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1.2 연구의 내용

본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시행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진행과정과 공과를 밝히고, 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것임.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음.

- ①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현황 분석, 평가 및 문제점 제시
- ② 해외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예시 및 제안
- ③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사업 중·장기(2022~2027) 개선 방안 로드맵 제시

2014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슈페이퍼」 이후 중단되었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연구의 연장선에 있음.

2008년 시작되었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으므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연구임.

### 1.3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방법

제2장. ‘한국영화산업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서는 한국 영화산업 특히 극장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영화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봄.

제3장.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에서는 현재 지원 사업의 내용과 대상이 되는 영화관들의 현황을 살펴봄. 전용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과 더불어 지원방식, 지원대상, 관객현황 등 현재 독립·예술영화전용관들의 운영 실태 및 프로그램, 상영 방식 등을 살펴봄.

제4장.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성과와 문제점’에서는 2021년까지 운영된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점 고찰.

제5장. ‘해외사례 연구’에서는 프랑스, 독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극장 지원사업들의 사례를 제시,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용례를 살펴봄.

제6장.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선 방안 제안’에서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중장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함.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 내부 자료,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 2008년~2021년 극장 통합전산망 데이터 자료를 활용함. 또한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열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연구보고서 사전토론회’(2022년 7월 1일, 영화교육지원센터) 및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2022년 7월 12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전용관 운영자 및 영화산업 전문가들의 제안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함.

아울러 기존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를 참고함. 2014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슈페이퍼」(고령자의 영화복지 확대를 위한 문화정책적 접근, 2021년 12월호) 작성 당시 인터뷰를 진행했던 수도권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자들을 통해 지원제도와 방향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참고.

독립·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전용관 확대가 가능하도록 중장기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 제언, 제도 개선안은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검토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가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지원사업 개선안이 실행되어야 함.





Korean  
Film  
Council

## 제2장

# 독립·예술영화 시장 환경변화 및 현황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 02

## 독립·예술영화 시장 환경변화 및 현황

### 2.1 한국 영화산업 및 시장 환경의 변화

#### 1) 2021년 한국 영화산업 및 시장 환경의 변화

표 1 최근 6년간 한국영화산업 결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b>극장매출</b>	<b>17,432</b>	<b>17,566</b>	<b>18,140</b>	<b>19,140</b>	<b>5,104</b>	<b>5,845</b>	단위: 억원
비중	76.7%	75.5%	76.3%	76.3%	48.4%	57.1%	
<b>극장외 시장매출</b>	<b>4,125</b>	<b>4,362</b>	<b>4,739</b>	<b>5,093</b>	<b>4,514</b>	<b>3,838</b>	
비중	18.1%	18.7%	19.9%	20.3%	42.9%	37.5%	
<b>해외수출</b>							
완성작	509	460	458	442	595	492	
서비스	664	883	427	418	324	64	해외작품의 한국 로케 감소
소계	1,173	1,343	885	860	919	556	
비중	5.2%	5.8%	3.7%	3.4%	8.7%	5.4%	
<b>합계</b>	<b>22,730</b>	<b>23,271</b>	<b>23,764</b>	<b>25,093</b>	<b>10,537</b>	<b>10,239</b>	단위: 억원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21년 영화산업 결산

코로나19의 영향은 즉각적으로 2020년 이후 한국 영화산업을 강타함.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한국의 극장 매출액은 예년의 1/3 수준으로 낮아졌고, 극장 매출액이 전체 영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6.4%로 절반도 차지하지 못함.

특히 2020년에는 극장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8.4%까지 떨어짐. 국내 영화산업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던 극장산업이 위기를 맞이함. 전체 영화산업 매출액이 2019년 2조 5천억 원에서 2021년 1조원 대로 크게 줄어들어, 영화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 중 하나임.

지역	인구수 (단위: 천명)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수	영화관 수			스크린 수		
			전체	비멀티/ 단관(개)	단관 비율 (%)	전체	비멀티/ 단관(개)	단관 비율 (%)
서울	9,500	34	89	16	18.00%	588	24	4.1%
부산	3,340	8	29	2	6.90%	223	5	2.2%
대구	2,378	3	23	2	8.70%	148	2	1.4%
인천	2,953	7	24	4	16.70%	155	12	7.7%
광주	1,436	3	17	2	11.80%	128	2	1.6%
대전	1,449	2	17	2	11.80%	108	2	1.9%
울산	1,117	0	8	2	25.00%	50	4	8.0%
세종	378	0	4	0	0.00%	23	0	0.0%
경기	13,577	6	132	11	8.30%	830	21	2.5%
강원	1,539	2	24	11	45.80%	116	24	20.7%
충북	1,597	1	20	3	15.00%	119	7	5.9%
충남	2,119	1	28	10	35.70%	142	18	12.7%
전북	1,780	1	28	12	42.90%	138	29	21.0%
전남	1,828	1	23	12	52.20%	101	24	23.8%
경북	2,617	2	32	6	18.70%	155	8	5.2%
경남	3,300	1	38	6	15.80%	197	10	5.1%
제주	677	0	6	1	16.70%	33	2	6.1%
<b>합계</b>	<b>51,592</b>	<b>69</b>	<b>542</b>	<b>102</b>	<b>18.80%</b>	<b>3,254</b>	<b>194</b>	<b>6.0%</b>

출처: 2021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영화진흥위원회)에서 수정

2021년 현재 한국의 영화관은 총 542개, 스크린 수는 3,254개. 이 중 지역별 비멀티/단관 영화관은 총 102개로 전체 극장 수 중 18.8%의 비중을 차지함. 멀티플렉스<sup>1)</sup>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1.2%.

스크린 수 비중으로 보면 비멀티/단관 스크린은 6.0%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함. 반대로 7개 이상 멀티플렉스와 체인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비중은 94%로 전체 스크린의 전부를 차지함. 이 중 2개 브랜드 극장(CJ-CGV, 롯데시네마)의 스크린 점유율은 75% 이상. 한국에는 스크린 독과점의 규제가 없으며 멀티플렉스의 스크린이 극장산업을 독점하고 있음.

지역별 스크린 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830개의 스크린이 있고, 서울 지역 588개, 부산 223개, 경남 197개 순.

단관 스크린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29개 단관 스크린을 확보. 비중 면에서는 전남 지역이 24개 단관 스크린을 확보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1) 이 연구보고서에서 멀티플렉스는 7개 스크린 이상을 보유한 극장이거나 대기업 체인의 멀티플렉스를 말한다.

세종 지역에는 단관 극장과 스크린이 0개로 모든 극장이 멀티플렉스임. 아울러 세종과 울산, 제주에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일 개 관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스크린 수를 살펴보면(표3), 평균 6.3개로, 2019년의 평균 5.9개<sup>2)</sup>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지역적 편차가 크고 영화관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 존재한다. 특히 울산과 제주는 인구 10만명 당 스크린 수가 평균 5개에 미치지 못함, 영화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낮음.

	인구수 (단위: 천명)	스크린 수	10만명 당 스크린 수 (개)
서울	9,500	588	6.20
부산	3,340	223	6.67
대구	2,378	148	6.21
인천	2,953	155	5.25
광주	1,436	128	8.95
대전	1,449	108	7.44
울산	1,117	50	4.50
세종	378	23	6.08
경기	13,577	830	6.11
강원	1,539	116	7.53
충북	1,597	119	7.48
충남	2,119	142	6.69
전북	1,780	138	7.75
전남	1,828	101	5.51
경북	2,617	155	5.93
경남	3,300	197	5.96
제주	677	33	4.92
<b>합계</b>	<b>51,592</b>	<b>3,254</b>	<b>6.30</b>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의 영화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침.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른 제한 상영으로 인하여 극장산업은 위축되었고, 많은 관객들이 영상콘텐츠 소비의 패턴을 OTT와 인터넷으로 전환하게 됨.

2) 영화진흥위원회, 「2019 한국영화산업 결산」, 2020

3) 영화진흥위원회, 「2020 한국영화산업 결산」, 2021에서 응용.

## 2.2 2021년 영화시장 - OTT와 플랫폼의 확대 및 콘텐츠의 확대

2020년 초 중국 7만여 개, 미국 2,500여 개, 유럽연합(EU) 9,000여 개 영화관의 폐쇄 및 한국 좌석수 절반 운영, 제한 상영 등 극장산업에 큰 타격을 불러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 2019년 영화산업의 성공으로 안정적 성장을 기대했던 전세계 영화시장은 순식간에 불안 국면에 접어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영화관들은 여러 가지 봉쇄조치 및 제한조치로 인해 입장객을 줄이거나 폐쇄됨. 2020년 3월 19일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약 2,500개 영화관들은 최소 6주에서 12주 동안 문을 닫았으며, 2020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의 티켓 판매 감소와 미화 6억 달러(한화 약 8,053억 원)의 적자를 기록. 3월의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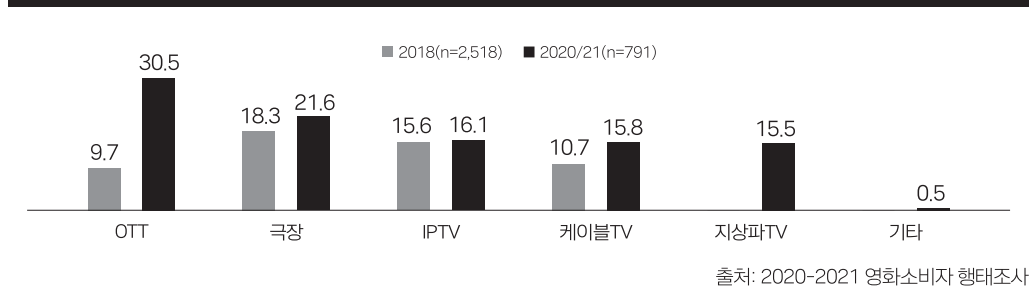
중국, 홍콩, 한국, 일본 전역에 걸친 영화관 봉쇄 및 제한 조치는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 큰 타격을 입혔고, 전문가들은 중국 설 연휴 동안 손실만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달. 2020년 1월부터 3월 12일까지의 흥행 손실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중국 86%, 한국 48%, 홍콩 38%, 대만 26%, 싱가포르 22%로 추산됨.<sup>4)</sup>

전세계의 영화 촬영, 시사화, 영화제 등은 거의 완전히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2020년 1분기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 약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힘.<sup>5)</sup>

2020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영화산업 내에서 극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줄어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과 영화 상영 시간의 제한으로 관객들의 영화관람 활동이 억제되었고,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외화의 극장 상영도 급속히 위축됨.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횟수가 줄어들자 관객들은 집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이용([그림 1]). 주요 영화 제작사들도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방식보다 일찍 IPTV 및 OTT에 영화를 개봉함. 즉 영화 홀드백<sup>6)</sup> 기간이 매우 짧아지거나 거의 없어짐.

그림 1 2018년과 2020년 독립예술영화 관람 경로 비교 (단위: %)



4)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49406/EPRS\\_BRI\(2020\)649406\\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49406/EPRS_BRI(2020)649406_EN.pdf)

5)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49406/EPRS\\_BRI\(2020\)649406\\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49406/EPRS_BRI(2020)649406_EN.pdf)

6) 홀드백이란, 영화콘텐츠를 유통하는 각각의 윈도우가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윈도우에서 다른 윈도우로 순차적으로 유통하는 윈도우 효과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함.

2018년도 독립예술영화 관람경로는 극장, IPTV, 케이블TV, OTT 순이었지만 2020년에는 OTT, 극장, IPTV, 케이블TV 순으로 바뀜.

OTT는 기존 TV의 셋톱박스(set-top box)를 넘어선다(Over-the-top)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지만,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산업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세분화한다면, 크게 구독제 서비스(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VOD), 편당결제 서비스(Transactional Video on Demand, TVOD), 전자구매서비스(Electronic Sell Through, EST)로 구별됨.<sup>7)</sup> 구독제 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훌루(구독제에 따라 AVOD 가능), 왓챠, 웨이브 등의 플랫폼이 있고, 편당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은 구글플레이, 아이튠스, 유튜브, 아마존 등이 있음. 전자구매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서비스는 아이튠스, 구글플레이, 유튜브, 아마존인스톨비디오 등이 있음.

이러한 플랫폼이 새로운 이동형 스트리밍 서비스로 정착하게 되면서, 약 3년여의 짧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한국의 극장 산업을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규모로 변화시킴. 많은 단편영화와 독립영화들이 한국 내에서 새롭게 등장한 OTT 플랫폼, 왓챠, 퍼플레이, 유튜브 등에서 관람이 가능함.

영화 홍보 역시 온라인 상의 홍보마케팅 방식이 가장 우선시 됨. 영화관 내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모바일 기기 및 SNS에서의 마케팅이 주류 광고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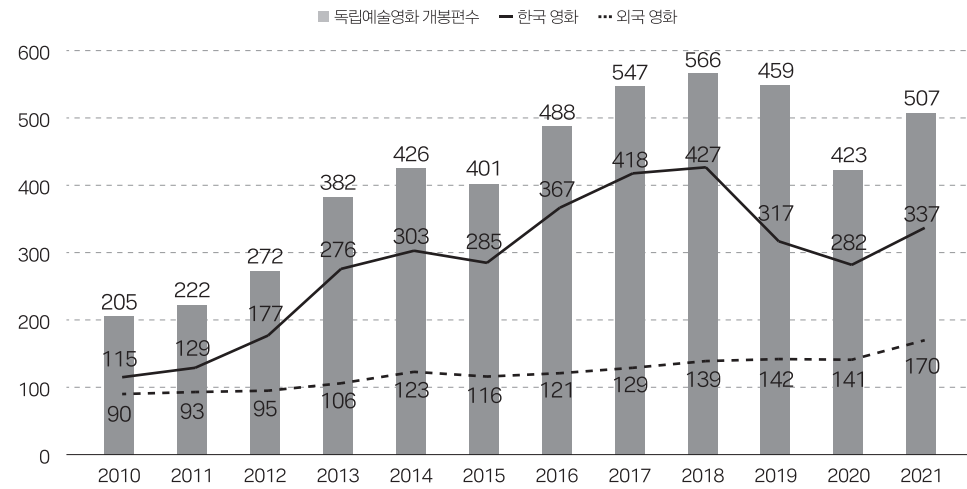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한국의 독립·예술 영화의 개봉 편수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2]), 2016년부터 외국영화 콘텐츠의 개봉 편수가 증가함. 외국 예술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는 편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6년도이지만, 2013년 이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관객 400만 명)와 <비긴 어게인>(관객 342만 명), <위플래쉬> 등 아트버스터 예술영화의 흥행으로 인해 독립, 예술영화 관객의 수가 증가한 것이 2016년 수입 영화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한국의 영화 수입업계는 증가한 독립예술영화 관객들의 변화를 읽어내면서 더 많은 양의 아트하우스(예술영화) 영화 콘텐츠를 수입하게 됨.

7) AVOD란, 광고기반서비스(advertising-based video on demand)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미국 훌루(Hulu)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온전한 AVOD 서비스 방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독립·예술영화 개봉 편수 추이 (2010-2021)



출처: KOBIS 통합전산망 자료 응용

표 4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추이 (2010-202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독립영화 전용관수	1	2	3	3	3	3	4	5	6	6	7	7
예술영화 전용관수	25	26	33	35	50	50	57	56	58	69	66	63
총합	26	28	37	39	54	54	62	61	64	75	73	70

출처: KOBIS 통합전산망 자료 응용

2010년에 제작되고 배급되었던 영화의 수는 한국독립예술영화 90편, 외국영화 115편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직전 2018년도 한국에 수입되는 외국예술영화의 편수는 무려 427편에 달함. 이는 그만큼 콘텐츠의 양이 많아졌다는 뜻이며 이를 관람하고자 하는 관객들의 요구도 많아졌다는 의미임.

이는 예술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적은 극장을 두고 배급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국내 전체 스크린 수는 약 3,000개 정도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태이며, 2022년 현재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수는 100개도 채 되지 않는 69개로, 500편에 달하는 독립·예술영화 개봉작을 소화해야 함.

2014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급속한 증가는 CGV의 광주, 대전, 압구정, 여의도, 오리 등 아트하우스 관이 문화부 지정을 받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늘어남. [그림 2]의 외국 예술영화 수입작품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음. 2019년 전용관이 증가한 것은 롯데시네마의 아르떼 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을 받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개관하여 늘어나게 된 것.

반면, 독립영화전용관의 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만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숫자가 늘어나지 않음. 2016년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개관하면서 1개관이 증가. 2017년에는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과 인디플러스 천안이 개관하면서 2개관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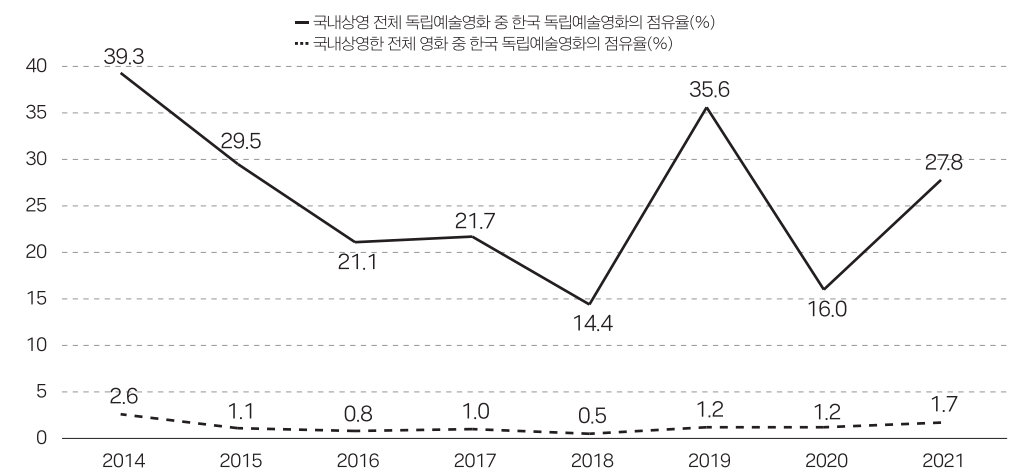
급격하게 증가한 외국 예술영화들은 수입과 동시에 69개밖에 되지 않는 스크린에서 상영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구조임. 이렇듯 콘텐츠의 양이 증가하였지만, 이 콘텐츠를 모두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의 수는 한정되어 있음.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개봉 편수는 외국 예술영화의 개봉 편수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으며, 한 해 120편 수준에서 2021년 170여 편으로 늘어난 정도. 영화진흥위원회의 배급지원을 받는 독립영화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한국의 독립영화가 전적으로 영진위의 제작지원금 및 배급지원을 받아서 제작/배급되고 있음. 상업영화의 배급비가 매년 상승하는 것과 달리 영진위의 배급지원금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매년 같은 수의 영화만이 제작되고 배급되고 있음.

2021년에 독립·예술영화의 개봉편수가 170편으로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대형 배급사들이 개봉을 미루어서 독립예술영화들이 상대적으로 개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 2021년에 개봉을 했다고 해서 많은 관객을 기대하기는 힘들.

다양해진 OTT 플랫폼 시장이 극장 중심의 한국 영화산업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영화관은, 특히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함. [그림 2]에서 보듯이, 이제는 극장에 찾아오는 관객의 수만이 아니라 한국에 공급되는 콘텐츠(영화)의 수를 함께 고려해야 함. 콘텐츠가 늘어난 만큼 영화관도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함.

그림 3 한국 독립·예술영화 점유율 추이 (2014-2021) (단위: %)



출처: 한국영화산업결산 보고서에서 응용 / 비교: 매출액 기준

코로나19의 확산 기간 동안 관객들이 접할 수 있는 외국영화 및 OTT 영상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관객들의 흥미 역시 더욱 확대됨. 이에 반해 한국의 독립영화, 예술영화의 점유율은 상당히 낮음. ([그림 3]) 이러한 다양한 영화에 대한 수요가 독립·예술영화의 활성화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확대로 이어져서 수평적 영화의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플랫폼 자체에 대한 확대와 영화관이라는 물리적 특성을 가진 공간을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그림 3]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영한 전체 독립, 예술영화 중 한국의 독립예술영화의 점유율은 평균 30%에 미치지 못하며, 2019년의 35.6%의 점유율은 <항거: 유관순 이야기>, <별새> 등의 흥행에 의존한 것임.

전체 영화 중 한국 독립영화, 예술영화의 점유율은 1% 대에 머물러 있음.

그 중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단관 극장들의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음. 현재 한국의 예술영화 시장은 멀티플렉스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얼마나 많이 상영되는가에 따라 흥행이 달라짐. 따라서 예술영화 수입배급사들은 CGV 및 메가박스 예술영화 상영담당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sup>8)</sup> 예술영화전용관 중에서도 멀티플렉스가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입배급사 및 한국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들은 멀티플렉스 극장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며, 단관 극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임. 수입배급사들은 단관 전용관을 예술영화 개봉을 위해 중요한 공간으로 여기지 않음. 단관 극장의 수적 확대가 역시 필요한 이유임.

kofic



8) 2022년 6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연구를 위한 사전 모임, 강기명 트리플픽처스 대표 발언.



### 제3장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현황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 03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현황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 전용상영관을 의미함.

2022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멀티플렉스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까지 합하여 총 69개관임.

표 5 2022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현황

순번	지역	상영관명	스크린명	독립/예술	지정일 (문체부 지정일자)
1	전남	광주극장	01관	예술	2007-5 (2007.07.25)
2	인천	영화공간주안	01관	예술	2007-6 (2012.01.26)
3	인천	영화공간주안	02관	예술	2007-7 (2012.01.26)
4	인천	영화공간주안	03관	예술	2007-8 (2007.07.25)
5	서울	서울아트시네마	01관	예술	2007-12 (2007.08.13)
6	대구	동성아트홀	01관	예술	2007-15 (2007.08.13)
7	서울	CGV 강변	04관(아트하우스)	예술	2007-17 (2007.08.13)
8	인천	CGV 인천	01관(아트하우스)	예술	2007-19 (2007.08.13)
9	부산	CGV 서면	ART1관	예술	2007-20 (2007.08.13)
10	대전	대전아트시네마	01관	예술	2007-22 (2007.08.13)
11	서울	허리우드클래식	01관	예술	2008-4 (2008.07.14)
12	서울	아트하우스모모	01관	예술	2008-9 (2008.10.20)
13	서울	아트하우스모모	02관	예술	2008-10 (2008.10.20)
14	경북	안동중앙시네마	01관	예술	2009-4 (2009.05.18)
15	서울	씨네큐브광화문	01관	예술	2009-6 (2009.12.30)
16	서울	씨네큐브광화문	02관	예술	2009-7 (2009.12.30)
17	서울	아리랑시네센터	아리랑인디웨이브	독립	2010-7 (2010.06.25)
18	전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1관	예술	2011-4 (2011.08.11)
19	서울	KT&G 상상마당 Cinema	01관	예술	2012-1 (2012.01.13)
20	부산	영화의 전당	소극장	예술	2012-2 (2012.01.26)
21	부산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관	예술	2012-3 (2012.01.26)



순번	지역	상영관명	스크린명	독립/예술	지정일 (문체부 지정일자)
22	서울	KU시네마테크	01관	예술	2012-4 (2012.04.24)
23	강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01관	예술	2012-7 (2012.05.08)
24	서울	인디스페이스	01관	독립	2012-8 (2012.06.11)
25	경기	명화극장	고전	예술-클래식	2013-1 (2013.05.16)
26	서울	아트나인	0관	예술	2013-2 (2013.07.05)
27	서울	아트나인	9관	예술	2013-3 (2013.07.05)
28	서울	필름포럼	01관	예술	2013-5 (2013.08.19)
29	서울	필름포럼	02관	예술	2013-6 (2013.08.19)
30	광주	CGV 광주터미널	05관(아트하우스)	예술	2014-1 (2014.02.20)
31	대전	CGV 대전	07관(아트하우스)	예술	2014-4 (2014.02.20)
32	경기	CGV 소풍	07관	예술	2014-8 (2014.02.20)
33	서울	CGV 압구정	아트하우스 ART1관	예술	2014-10 (2014.02.20)
34	서울	CGV 압구정	아트하우스 ART2관	예술	2014-11 (2014.02.20)
35	서울	CGV 여의도	05관 (아트하우스/Sonictier)	예술	2014-13 (2014.02.20)
36	경기	CGV 오리	08관(아트하우스)	예술	2014-14 (2014.02.20)
37	경남	씨네아트 리움	01관	예술	2016-47 (2016.02.22)
38	인천	영화공간주안	04관	예술	2016-64 (2016.03.16)
39	서울	에무 시네마 앤 카페	01관	예술	2016-65 (2016.03.16)
40	대구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오오	독립	2016-69 (2016.07.07)
41	서울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ART1관	예술	2016-70 (2016.07.07)
42	서울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ART2관	예술	2016-71 (2016.07.07)
43	부산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독립	2017-1 (2017.06.20)
44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	소상영관 A	예술	2017-2 (2017.06.27)
45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	소상영관 B	예술	2017-3 (2017.06.27)
46	충남	인디플러스천안	01관	독립	2017-5 (2017.09.21)
47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	19관(아트하우스)	예술	2018-6 (2018.11.26)
48	부산	CGV 서면	ART2관	예술	2018-7 (2018.11.26)
49	경북	인디플러스 포항	01관	독립	2018-8 (2018.11.26)
50	서울	더숲 아트시네마	01관	예술	2019-1 (2019.03.05)
51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07관(아르데)	예술	2019-2 (2019.05.16)
52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11관	예술	2019-3 (2019.05.16)
53	서울	롯데시네마 신도림	04관	예술	2019-4 (2019.05.16)
54	인천	롯데시네마 부평	09관(아르데 클래식)	예술	2019-5 (2019.05.16)
55	부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백화점)	08관(아르데)	예술	2019-7 (2019.05.16)
56	부산	롯데시네마 오두(부산대)	02관(아르데)	예술	2019-8 (2019.05.16)
57	부산	롯데시네마 광복	아르데	예술	2019-9 (2019.05.16)
58	경기	헤이리시네마	01관	예술	2019-10 (2019.05.16)

순번	지역	상영관명	스크린명	독립/예술	지정일 (문체부 지정일자)
59	서울	에무 시네마 앤 카페	02관	예술	2019-11 (2019.08.30)
60	서울	CGV 신촌아트레온	10관(아트하우스)	예술	2019-12 (2019.09.23)
61	충북	CGV 청주(서문)	02관(CGV 아트하우스)	예술	2019-13 (2019.09.23)
62	강원	CGV 춘천	08관(아트하우스)	예술	2019-14 (2019.09.23)
63	경기	CGV 평촌	08관	예술	2019-15 (2019.09.23)
64	전남	광주독립영화관	01관	독립	2020-1 (2020.04.09)
65	인천	인천미림극장	01관	독립	2020-2 (2020.09.15)
66	서울	더숲 아트시네마	02관	예술	2020-3 (2020.09.23)
67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12관(아르데)	예술	2020-4 (2020.10.14)
68	서울	낭만극장	01관	예술-클래식	2020-5 (2020.12.30)
69	서울	라이카시네마	S관	예술	2022-5 (2022.02.21)

비고: 색 구분은 비멀티/멀티 극장의 구분임.

총 69개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28곳임. CGV 아트하우스 18개관, 롯데시네마아르데클래식 8개관, 메가박스 소상영관 2개관.

2017년 이후 멀티플렉스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영진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내 극장이 없는 지역에 한정하여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지원을 허용함 (제주 등). 따라서 현재 영진위의 지원 대상은 비멀티플렉스 관을 대상으로 함. 모든 전용관이 매년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통해 선발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개수	34	8	2	7	3	2	0	0	5	2	1	1	1	0	2	1	0	69
비중 (%)	49.2	11.6	2.9	10.1	4.3	2.9	0	0	7.2	2.9	1.4	1.4	1.4	0	2.9	1.4	0	100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34개관으로 절반에 가까운 49.2%를 차지했고, 부산 8개관, 인천 7개관, 경기 6개관 순임.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포함한 수도권에만 전체의 66.7%에 해당하는 46개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위치함.

울산과 세종, 전남, 제주에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음. 이 지역의 독립·예술영화 관객들은 독립·예술영화를 보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거나 OTT를 통해서 한정된 영화를 감상해야 하는 실정임.

구분	스크린수			
	인구10만명 당 스크린 수	전체	비밀티/단관극장 (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전국	6.3	3,254	194	69(41개 비밀티)
독립예술영화전용관비율(%)		2.1%		35.6%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전체 스크린수 대비 2.1%에 불과함. 비밀티/단관극장 내 비율로 따져도 35.6%만을 차지함.

### 3.1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 1)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약사(略史)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설립 취지는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상영공간을 제공하여 영화의 다양성을 활성화하고 관람객들에게 독립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음.

연도	지원 사업 약사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년 옛 중앙극장에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개관 (영진위 지원 시작)</li> <li>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독립영화협회 위탁 운영으로 2007-2009 3년간 지원.</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디스페이스에서 서울독립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벌, 인디포럼 등 개최 및 한국독립영화의 개봉 지원.</li> <li>2009년 12월 30일 인디스페이스 잠정 휴관.</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자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의 씨네마루가 위탁 운영 시작.</li> <li>아리랑씨네센터(서울) 개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li> <li>한국영상자료원 KOFA 2관<sup>9)</sup>, 7월부터 위탁 운영 시작</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씨네마루 운영 문제<sup>10)</sup>로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직영 결정</li> <li>인디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영진위가 직영함.</li> <li>아리랑씨네센터 1개관 및 한국영상자료원 1개관 운영 지원</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진위 직영 시스템 개선 → 다음 해부터 직영 없음.</li> <li>인디스페이스가 민간 독립영화전용관 제1호관으로 재개관</li> <li>아리랑씨네센터 1개관 및 한국영상자료원 운영 지원 계속.</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디스페이스, 아리랑씨네센터, 한국영상자료원 3개관 운영 지원</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리랑씨네센터, 인디스페이스 2개관 운영 지원</li> </ul>							

9) 한국영상자료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라는 특성상 이 극장은 365일 운영하지 않았으며, 서울 시내에서 다양한 소규모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독립된 프로그래밍을 통해 전용관을 운영함. 한국영상자료원의 독립영화전용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었으며, 이후 한국영상자료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함.

10)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06793.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06793.html) 검색일자: 2022년 7월 24일

연도	지원 사업 약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1개관 설립 지원</li> <li>운영 지원 폐지. 영진위 직영 인디플러스만 남김</li> <li>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지원금 없이 개관</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경기 제외 지역 전용관 설립지원 (부산, 포항, 천안 3개관)</li> <li>운영 지원 없음</li> <li>12월 인디플러스 폐관</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관 추가 선정 설립 지원 (부천, 광주. 수도권 극장 포함 설립 지원)</li> <li>운영지원 재개하여 총 6개관 운영 지원 (2016년까지 설립 지원한 전용관 3개관 포함)</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개관 선정 운영 지원</li> <li>설립지원 신청 없음 (폐지)</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개관 선정 운영 지원</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관 선정 운영 지원</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개관 선정 운영 지원</li> </ul>

최근 5년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현황은 [표 8]과 같음. 독립영화전용관의 숫자가 적어서 지역 비율의 의미는 크지 않음. 독립영화전용관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

5년간 평균 지원 금액은 70,255,470원이지만, 지원금 예산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연도	지원 관수	지역	수도권	지역 비율	단관극장 지원관수(비율)	멀티플렉스 지원관수(비율)	총 지원금액(원)
2017	8	5	3	62.5%	8 (100%)	0 (0%)	782,951,840
2018	6	4	2	66%	6 (100%)	0 (0%)	753,543,450
2019	5	3	2	60%	5 (100%)	0 (0%)	665,452,390
2020	6	4	2	66%	6 (100%)	0 (0%)	680,666,667
2021	7	5	2	71%	7 (100%)	0 (0%)	630,159,200
총계	32	-	-	-	32	0	3,512,773,547
평균	6.4	4.2	2	65.6%	-	0 (0%)	702,554,709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 시행에 있어서 변동이 심하였음.

내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월~12월)	2012년 (1월~6월)	2011년	2012년 (~6월)	비고
	상영관	인디스페이스		시네마루	인디플러스			
운영자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다양성 영화발전협 의회	영화진흥위원회 직접운영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비	460백만원	460백만원	460백만원	480백만원	480백만원	150백만원	150백만원	임대료 포함 인디플러스 계약직 인건비 별도. <점 다류 강정> 상영 불허
총 상영편 수	401편	392 편	661 편	344편	111편	53편	35편	기획전포함
총 관람객 수	13,525명	36,249명	22,804명	14,173명	11,388명	16,258	7,100	'09 워낭소리 개봉 특수
좌석 점유율				9.90%	14.50%			

2017년 이후 운영 지원 사업이 안정화 되었지만 지원금 예산 총액이 낮고 지원 가능한 극장의 수가 여전히 적음.

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영관	인디플러스	인디플러스	설립지원 (인디플러스 포함, 천안, 영화의 전당)	설립지원 (인디플러스 포함, 천안, 영화의 전당)	아리랑시네 센터	아리랑시네 센터	아리랑시네 센터	아리랑시네 센터	아리랑시네 센터		
	아리랑시네 센터	아리랑시네 센터			인디 스페이스	인디 스페이스	인디 스페이스	인디 스페이스	인디 스페이스	인디 스페이스	
	한국 영상자료원 KOFA2관	한국 영상자료원 KOFA2관			한국 영상자료원 KOFA2관	인디플러스 포함	인디플러스 포함	인디플러스 포함	인디플러스 포함	인디플러스 포함	인디플러스 포함
						인디플러스 천안	인디플러스 천안	대구독립 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독립 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독립 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독립 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독립 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독립 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광주독립 영화관 (설립지원)	광주독립 영화관 (설립지원)				
						인디 스페이스	인디 스페이스	판타스틱 큐브 (설립지원)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광주독립 영화관	대전독립 영화전용관 씨네인디U

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총액	894백만원	894백만원	894백만원	584백만원	1,100백만원	1,100백만원	684백만원	684백만원	684백만원
지원금 현황	3개관 16,450만원	내부자료 부정확	8,760만원	36,361만원	78,295만원	75,354만원	66,545만원	68,067만원	68,400만원
비고		인디플러스 <다이빙벨> 상영 불허		직영 인디플러스 (서울) 폐관	6개관 운영 지원 2개관 설립지원	설립지원 폐지	인디플러스 천안은 예술 영화전용관 으로 신청	판타스틱 큐브 심사 탈락	

색 구분 - 민간운영/지자체지원/설립지원 구분.

2015년에는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을 중지하고 설립 지원 사업을 시작. 운영지원은 인디플러스 직영만 남김. 인디플러스 지원예산은 별도의 예산으로 [표 9]의 예산에는 속해있지 않음. 2016년 12월 영진위 직영 인디플러스 폐관. 설립지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존재.

설립지원 내용(2015-2017)

- 신청대상 및 자격을 독립영화상영활성화 및 지역 관객의 독립영화 문화 접근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역민간단체로 한정하여 자치단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함. 구체적으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에 의해 상영업을 등록하고, 영화상영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지원이 확정된 지역민간단체이며, 민간단체의 경우, 자체자금이 총 사업비의 2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지원내용: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에 필요한 임차료 등이며, 설립 전체 소요예산의 70%, 최대 1억 5천만 원을 넘지 못함.
- 지원조건: 향후 최소 5년간 독립영화전용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위원회 인디플러스 편성 프로그램 연간 219일 이상 상영하여야 할 것 등

지자체의 운영지원이 확정된 민간단체의 수가 많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모 지원이 부족하여, 독립영화전용관 설립 지원 사업이 2018년 폐지됨.

인디플러스 천안의 경우 독립영화전용관 설립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

정책의 일관성 없이 파행을 거듭하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6개관 운영지원 및 2개관 설립지원으로 제시작.

## 2)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내용

### 2022년 현재 운영 지원 사업 기준

- 예산총액: 855백만원
- 매년 7-8개관 내외 심사 후 지원 결정.
- 심사위원회 : 5인
- 심사기준:

내용		
① 기 지원극장 대상		
심사영역	심사항목	세부 평가기준
사업 주체 (100점)	사업수행능력 (40점)	(1)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2) 상영관 홍보 실적(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사업계획 (50점)	(3)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등) (4) 상영관 홍보 계획(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5) 구성 인력의 전문성
	지원 파생 효과 (10점)	(6)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 (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총점 (100점)		
② 신규 지원극장 대상		
심사영역	심사항목	세부 평가기준
사업 주체 (85점)	사업수행능력 (20점)	(1)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2) 상영관 홍보 실적(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사업계획 (55점)	(3)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등) (4) 상영관 홍보 계획(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5) 구성 인력의 전문성 (6) 독립영화 상영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
	지원 파생 효과(10점)	(7)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상영관 시설 (15점)	영상음향 시설의 성능 (9점)	(8) 영상소스 재현의 충실도 (9) 상영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10) 영상음향 시설 관리 적절성
	상영관 환경의 적절성 (6점)	(11) 시설의 편의성 및 쾌적도 (12) 상영관 규모의 적합성
총점 (100점)		

심사방법은, 최고점과 최소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해당 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하며,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득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평가한

사업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결정의결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결정 심사에 회부.

인센티브 지원 심사 평가 대상은 기존 지원 극장만으로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및 지원 파생효과 항목을 점수에 반영함. 인센티브 등급에 따라 잔여예산을 나누어 지급함.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지원 파생 효과> 항목 점수 반영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사업수행능력(80%)	40%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 - 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독창성 등
	40%	상영관 홍보 실적 - 홍보 실적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영관 활성화 및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지원 파생 효과(20%)	20%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② 평가산식: 각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

평가등급	분류	지급액
S등급	1 순위	잔여예산의 35%
A등급	2 순위	잔여예산의 25%
B등급	3~4순위	잔여예산의 15%
C등급	5~6순위	잔여예산의 5%

\* 동점의 경우 심사위원 투표로 순위 결정

③ 프로그램 운영 직접비(인건비, 기획비, 상영비, 홍보/마케팅비 등)에 사용 가능

### 운영 지원금 지급 방식

- 좌석수 기준 200석 이상 극장에게 총 75,040,000원을 지급함.

① 연간프로그램 기획비는 40,000,000원을 모든 전용관에 기본적으로 지급(홍보, 프로그램 기획비, 인건비 포함)

② 좌석점유율 지원금 (200석 이상 기준) : 35,040,000원

좌석수에 따라 지원금 변동: (좌석수)×20%×219일×4,000원(부율)

\* 100석 미만 시 적용산식:

- 17,520,000원(100석 기준 좌석점유율 지원금)×차감지급율

【차감지급율 = 1-(100- 좌석수)/100X3/4】

### 3)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 현황

#### 독립영화전용관들의 2017년도 이후 운영 실적

— 2017년부터 현재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형태로 2022년까지 운영되고 있음.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극장들은 큰 변화없이 운영 지원을 받음. 그러나 전체 예산의 증액은 없으며, 인센티브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됨.

구분	극장명	스크린명	예술독립영화			일반영화			관객수 합계
			상영회차	상영편수	관객수	상영회차	상영편수	관객수	
1	아리랑시네센터 (서울)	독립 영화전용관	1,522	71	9,757	94	12	3,014	12,771
2	인디스페이스	01관	1,574	107	27,888	135	98	3,209	31,097
3	대구독립영화 전용관 오오극장	오오	1,456	94	11,339	83	62	1,224	12,563
4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1,320	99	10,994	139	50	2,050	13,044
5	인디플러스 포항	01관	552	74	3,788	0	0	0	3,788
6	인디플러스천안	01관	532	77	2,651	12	6	201	2,852
7	광주독립영화관	01관	설립지원						
8	판타스틱큐브	01관	설립지원						
관객수 총합					66,417			9,698	76,115

아리랑시네센터(서울)의 경우 예술독립영화 상영편수가 71편으로 일반영화 12편에 비해 많지만, 일반영화의 관객수가 전체 관객수의 1/4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극장 자체의 관객 확대를 위하여 일반영화의 동반 상영의 병행이 여전히 필요함을 알 수 있음.<sup>11)</sup>

2017년만 해도 일반 명 이상 관객을 모을 수 있는 독립영화전용관의 수가 4개 극장에 이를 정도로 관객의 수요가 있었음. 상영편수는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11) 다음 글에서 <헤어질 결심>에 대해 언급한 부분과 같은 맥락임. [http://m.cine21.com/news/view/?mag\\_id=100958&utm\\_source=dable](http://m.cine21.com/news/view/?mag_id=100958&utm_source=dable)

구분	극장명	스크린명	예술독립영화			일반영화			관객수 합계
			상영회차	상영편수	관객수	상영회차	상영편수	관객수	
1	광주독립영화관	01관	420	51	1,992	25	16	174	2,166
2	대구독립영화 전용관 오오극장	오오	1,434	81	8,699	74	52	1,058	9,757
3	아리랑시네센터 (서울)	독립 영화전용관	1,289	54	7,367	4	2	30	7,397
4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1,323	103	9,153	87	54	995	10,148
5	인디스페이스	01관	1,666	102	19,621	130	106	2,868	22,489
6	인디플러스 천안	01관	683	92	4,400	19	7	185	4,585
7	인디플러스 포항	01관	547	65	2,560	9	7	97	2,657
관객수 총합					53,792			5,407	59,199

2018년에는 설립지원 사업이 폐지되고 운영지원만 남게 됨. 민간운영극장 및 인디플러스 운영(지자체 지원)으로 나뉘어 지원 사업을 운영함. 관객 순으로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민간운영극장인 인디스페이스가 가장 많은 관객을 확보했으며 다음이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순임.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관객수가 줄어들어서 관객수 일만 명을 넘긴 극장이 인디스페이스와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2곳뿐임.

구분	극장명	스크린명	예술독립영화			일반영화			관객수 합계
			상영회차	상영편수	관객수	상영회차	상영편수	관객수	
1	대구독립영화 전용관 오오극장	오오	1,367	84	10,403	103	88	1,073	11,476
2	아리랑시네센터 (서울)	독립 영화전용관	1,402	64	9,552	15	14	47	9,599
3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1,193	92	9,319	192	81	1,530	10,849
4	인디스페이스	01관	1,510	97	24,429	102	73	2,037	26,466
5	인디플러스 포항	01관	650	102	9,089	43	32	671	9,760
6	인디플러스천안	01관	802	76	7,638	0	0	0	7,638
관객수 총합					70,430			5,358	75,788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관객수가 증가하여 예년 수준을 되찾을 수 있었음. 그러나 일반 명 이상 관객을 모은 극장은 여전히 3개 극장에 그침.



**표 14 독립영화전용관 2020년 운영(상영) 결과**

구분	극장명	스크린명	예술독립영화			일반영화			관객수 합계
			상영편수	상영회차	관객수	상영편수	상영회차	관객수	
1	광주독립영화관	01관	67	551	1,865	11	21	104	1,969
2	아리랑시네센터	아리랑인디 웨이브	42	422	2,280	1	2	8	2,288
3	인디스페이스	01관	80	1,172	12,160	62	77	1,189	13,349
4	인디플러스 포항	01관	60	352	2,871	13	13	164	3,035
5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01관	72	914	4,475	61	107	991	5,466
6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81	730	4,125	40	87	427	4,552
관객수 총합					27,776			2,883	30,659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극장 좌석 띄어앉기, 상영시간 제한 등으로 독립영화전용관 전체 관객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함.

일반 관객을 넘긴 곳은 인디스페이스 한 곳 뿐임.

**표 15 독립영화전용관 2020년 티켓판매율**

구분	극장명	스크린명	지원금액(원)	총관객수	총 상영회차	상영관 좌석수	좌석점유율(%)
1	광주독립영화관	01관	74,023,810	1,969	572	105	3.3%
2	아리랑시네센터	아리랑인디 웨이브	109,133,830	2,288	424	127	4.2%
3	인디스페이스	01관	181,101,337	13,349	1,249	210	5.1%
4	인디플러스 포항	01관	90,667,810	3,035	365	262	3.2%
5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01관	129,746,050	5,466	1,021	55	9.7%
6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95,993,830	4,552	817	36	15.5%
총계			680,666,667	30,659			

2020년은 티켓판매율 통계를 추가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후 극장의 판매현황을 추적함.

인디스페이스는 일반 관객을 넘겼지만 티켓 판매율은 5.1%에 그침.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이 15.5%의 티켓 판매율을 기록함. 이는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의 영향과 함께, 좌석수가 적어서 가능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대구 오오극장의 경우 티켓 판매율이 9.7%를 기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버틴 것으로 보임.

**표 16 독립영화전용관 2021년 운영(상영) 결과**

구분	극장명	스크린명	예술독립영화			일반영화			관객수 합계
			상영편수	상영회차	관객수	상영편수	상영회차	관객수	
1	광주독립영화관	01관	147	1,335	4,655	12	27	254	4,909
2	대전독립영화 전용관 씨네인디U	01관	85	763	1,778	8	62	155	1,933
3	아리랑시네센터 (서울)	아리랑인디 웨이브	94	1,619	5,805	31	167	2,024	7,829
4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155	1,190	4,167	0	0	0	4,167
5	인디스페이스	01관	131	1,333	13,974	45	51	815	14,789
6	인디플러스 포항	01관	99	710	5,255	1	2	5	5,260
7	대구독립영화 전용관 오오극장	오오	139	1,847	4,229	11	29	100	4,329
관객수 총합					39,863			3,353	43,216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관객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관객수는 2020년에 비해 상승함.

**표 17 독립영화전용관 2021년 티켓판매율**

구분	극장명	스크린명	지원금액(원)	총관객수	총 상영회차	상영관 좌석수	좌석점유율(%)
1	광주독립영화관	01관	97,203,310	4,909	1,362	105	3.4%
2	대전독립영화 전용관 씨네인디U	01관	53,840,800	1,933	825	72	3.2%
3	아리랑시네센터 (서울)	아리랑인디 웨이브	75,186,170	7,829	1,786	127	3.4%
4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62,046,170	4,167	1,190	36	9.7%
5	인디스페이스	01관	165,590,390	14,789	1,384	210	5.0%
6	인디플러스 포항	01관	139,718,850	5,260	712	262	2.8%
7	대구독립영화 전용관 오오극장	오오	90,414,310	4,329	1,876	55	4.1%
총계			684,000,000	43,216			

2021년에는 티켓판매율 10%를 넘은 독립영화전용관이 없음. 코로나19의 여파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음.

극장별 운영 프로그램

① 아리랑시네센터(서울): 아리랑시네센터는 2004년도 개관하여 3개 상영관 중 1개를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운영중. 국내 독립영화전용관 중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임. 성북문화재단이 운영하며 지차계와 영진위 공동 지원을 받고 있음. 요금은 7,000원, 좌석수는 127개. 2010년부터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여, 설립지원만 있었던 2015년도와 2016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지원을 받아옴.

아리랑시네센터 (서울) 2021년 프로그램 및 상영영화	아리랑시네센터와 함께하는 인디서울 2021	초미의 관심사, 남매의 여름밤, 휴가, 세자매,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 다시 만난 날들, 빛과 철, 파이터, 그대 너머에, 사당동 더하기 33, 비밀의 정원, 학교 가는 길, 혼자 사는 사람들, 클라이밍, 종착역 등
	성북 감독전: 상영 7분 전, 제3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2021 인디웨이브 PICK: 여름-쉬고-영화, 기주봉 배우전, 스크린댄스특별전: 풀다, 바람, 보통의 우리, 우리의 2000's, 언니네영화관2021, 성북청춘불패영화제	너에게 가는 길, 더 한복판으로, 사당동 더하기 33, 열아홉, 까치발, 흩어진 밤, 빛나는 순간, 청춘선거, 메이드 인 루프탑, 우리는 매일매일, 그레타 툰베리, 클라이밍, 낫아웃, 정말 먼 곳, 강변호텔, 기주봉 단편선, 69세, 풀다바람,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 십개월의 미래, 사상, 뿌디 마망, 울림의 탄생, 종착역, 학교 가는 길, 휴가, 작은 새와 돼지씨, 정릉길, 함바 등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50,210	150,000	150,000	78,500	75,900	-	-	71,792	128,834	117,893	109,134

② 인디스페이스: 민간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 현재 가장 많은 지원금(인센티브 포함)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서울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중 1관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9,000원, 좌석수는 186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가 잘 되어 있고 독자 예매시스템을 운영중.

인디스페이스 2021년 프로그램 및 상영영화	인디돌잔치, 오렌지 필름, 인디포럼 월레비행,	성혜의 나라, 하트, 찬실이는 복도 많지, 바람의 언덕, 나는 보리, 야구소녀, 육창, 남매의 여름밤, 나를 구하지 마세요, 담쟁이, 애비규환, 겨울밤에
	임성미 단편선, 김나경 감독 단편선,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 2021, 황무지 5월의 고해, 여성영화를 말한다, 2021 씬머 프라이드 시네마, 인디스페이스 여름방학, 기주봉 배우전, 2021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회,	복자, 연애다큐, 지금 당장 유학을 가야해!, 내 차례, 대리시험, 재춘언니, 최선의 삶, 태어나길 잘 했어, 미나리, 야구소녀, 내언니전지현과 나, 너에게 가는 길, 갈매기, 십개월의 미래,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윤희에게, 와니와 준하, 우주인 조안, 전나환 작가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50,000	50,000	-	-	74,624	169,200	204,873	181,101	165,590

③ 인디플러스 포항: 포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북지역의 유일한 독립영화전용관.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 위치. 2016년 영진위 설립 지원금을 받아 설립되어 이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좌석수 262석, 관람료 3500원. 다른 독립영화전용관과의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독립영화를 꾸준히 상영하고 있음.

인디플러스 포항 2021년 프로그램 및 상영영화	정기기획전: 단단한 영화전, 텃밭날 프로젝트, 일 끝나고 뭐해, 왕가위 FULL DAY, 미나리 FULL DAY, 원헬스 단편선, 시네마테라피, 여성서사 기획전	화양연화,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종경삼림, 누구나 외로운 계절, 낙원, 영재를 기다리며, 운디드, 메모리즈, 별새
	특별 기획전: 캠성낭만, 시너지 PICK, 영화관에서 보는 나의(), 일일 아트 시네마, 손바닥 영화제, 영화제 협업 기획전	버티고, 소공녀, 파도를 걷는 소년, 유스, 파이터, 덕구, 남극의 쉼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패딩턴, 동물의 숲, 위대한 개츠비, 미드나잇 인 파리, 라따뚜이, 물에 빠진 나이프 등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21,250	134,750	71,397	93,587	90,667	139,718

④ 광주독립영화관: 2017년 영진위의 설립 지원을 받아 설립됨. 지역의 영화단체들과 창작자들로 구성된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운영함. 광주 서석동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 위치. 관람료 7,000원. 좌석수 91석. 전남 광주 지역 유일의 독립영화전용관임.

광주독립영화관 2021년 프로그램 및 상영영화	GIFT 개관 3주년 기획전, 518 민중항쟁 41주기 특별전, 한국영화클래식 I, 박홍민 감독전, 강유가람 단편선, 코로나19 극복 기획전; 그럼에도 독립영화,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공동기획전, 인디피크닉 2021 in 광주, 생각의 여름 배우 단편선, 기주봉배우전, 인디그라운드x독립영화전용관 특별기획전, 광주청소년영화 공동체 상영회; 우리의 영화, 박소현 감독 특별전 등	진도, 황무지 5월의 고해, 허녀, 짝고, 칠수와 만수, 물고기, 진주머리방, 흩어진 밤, 다시 만날 날들, 오래달리기, 강변호텔, 캐논볼 등
---------------------------------	---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19,083	140,396	0	74,023	97,203

⑤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 중구 중앙로에 위치한 오오극장은 대구경북영화영상 협동조합이 운영함. 관람료는 8,000원이며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는 7,000원임. 좌석수 55석. 지역에서 설립한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하면서 지역 영화 상영에도 일조함. 2017년 이후 꾸준히 독립영화전용관 지원금을 받음.

오오극장 2021년 프로그램 및 상영영화	정기 기획상영: 오렌지필름 기획전, 관객프로그램 초이스, 인디피크닉 2021, 대구독립영화 연말정산 2021	필스 굿 맨, 움직이는 여자들, 김우겸 배우전, 김신비 배우전, 이우정 감독전, 스톱-젤리아, 여름 지나 겨울, 너에게 가는 길, 최선이 삶
	지역 커뮤니티 공동기획전: 보는 페미니즘, 사회복지영화제, 영화를 보다가 생각하는 것들 보통의 우리, 우리의 2000's	기억의 전쟁, 등글고 등글게, 생각의 여름, 여름의 얼굴, 송해 1927, 집의 시간들, 나의 한국영화, 괴물, 유령, 자유인, 찬살이는 복도 많지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62,927	157,607	144,345	129,746	90,414

⑥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역 영화의 전당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은, 총 6개 극장 (중극장, 시네마테크, 소극장, 인디플러스, 하늘연극장, 야외극장) 중 하나이며, 한국의 독립영화들을 위주로 상영함.  
- 매달 한국독립영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개봉하고 있으며, 요금은 일반 8,000원 청소년 7,000원임. 각종 지역의 영화제들을 개최하여 다양한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들을 볼 수 있음.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2021년 프로그램 및 상영영화	정기 프로그램: 인디스데이, 오렌지 필름, 작은영화영화제, 다큐, 쇼타: 독립다큐멘터리 상영회, Media art work screening	제자리에서, 풍요시대 빈곤시대, 강길우x이상희 배우전, 관계의 증명, 여름을 생각해!, 보드랍게, 사상, 재춘언니 등
	기획전: 개관 5주년 기획전, My shootong star 배우전 (우지현 배우전), 박홍민 감독전	젊은 날, 너와 나에게, 귀인열전, 부산, 독립영화: 내일의 오늘,
	인디피크닉 서울 독립영화제 순회 상영회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87,600	96,360	95,000	40,000	104,753	95,993

⑦ 대전독립영화전용관 씨네인디U: 대전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중구 문화동에 위치함. 2020년 4월 운영 시작. 관람료는 7,000원, 좌석수 72개. 대전시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양한 기획전과 함께 독립영화 개봉관으로 역할을 함. 2022년에는 지원하지 않음.

대전독립영화전용관 씨네인디U 2021년 프로그램 및 상영영화	인디피크닉 2021 in 대전, 김소형 감독 단편 모음선, 오렌지 필름 특별전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금기에의 도전, 소설가 구보의 하루, 로그 인 벨지움, 라임 크라이, 싸나희 순정, 너에게 가는 길, 아워 미드나잇, 1984 최동원, 그림자꽃, 당신 얼굴 앞에서 등
-----------------------------------	---	---

연도	2020	2021	2022
금액	-	53,840	지원하지 않음

4) 지역별 독립영화전용관 분포

그림 4 지역별 독립영화전용관 분포



- ① 서울 지역: 서울에는 현재 두 곳의 독립영화전용관이 운영되고 있음. 성북구의 아리랑시네센터, 마포구 홍대에 자리하고 있는 인디스페이스 (2022년 종로구에서 마포구로 이전).
- ② 경기도 지역: 판타스틱큐브는 2017년 이후 설립지원 및 운영 지원을 받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022년 심사에서 탈락하여 현재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 ③ 대전 지역: 씨네인디U는 2020년 4월 운영 시작. 2021년 운영 지원을 받았지만 2022년에는 지원 받지 않음. 현재 운영 중.
- ④ 경북 지역: 인디플러스 포항 한 곳만이 운영되고 있음.
- ⑤ 대구 지역: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한 곳이 운영되고 있음.



⑥ 부산 지역: 현재 경남과 부산 지역을 통틀어 유일한 독립영화전용관은 부산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한 곳뿐임.

⑦ 광주 지역: 광주독립영화관은 영진위의 설립 지원을 받고 지자체와 함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타 지역은 독립영화전용관이 전무함. 인디플러스 천안의 경우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설립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중.

**표 25 지역별 독립영화전용관 분포 현황**

지역	단체명	극장명	상영관	좌석수
1 서울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서울)	03관	125
2 서울	(사)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 모임	인디스페이스	01관	210
3 경북	(재)포항문화재단	인디플러스 포항	01관	262
4 광주	사단법인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독립영화관	01관	105
5 경기	(재)부천문화재단	판타스틱 큐브	01관	70
6 대구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오오	55
7 부산	(재)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36
8 대전	대전독립영화협회	씨네인디U	씨네유	72

### 3.2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 1) 예술영화전용관의 운영 지원 사업 약사(略史)<sup>12)</sup>

연도	사업 내용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멀티플렉스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중단</li> <li>비멀티 극장 위주의 운영 지원금 교부</li> <li>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허리우드클래식, 아트하우스 모모 등 15개관 선정 지원</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개관 선정 지원</li> <li>지역 멀티플렉스 예술영화전용관 지원금 교부</li> <li>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폐지 및 예술영화유통배급사업 시작</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 미교부</li> <li>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폐지로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휴관</li> </ul>

12) 2002-2013년까지의 운영 지원 사업 약사는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이슈페이퍼」(2014)를 참조할 것.

연도	사업 내용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개관 선정 지원 (3개 극장을 제외하고 일괄 동등 지급)</li> <li>예술영화유통배급사업<sup>13)</sup>으로 운영.</li> <li>지역 멀티플렉스 예술영화전용관 1곳 지원 (차등 지급)</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개관 선정 지원</li> <li>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으로 돌아감</li> <li>멀티플렉스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li> <li>심화사업 추가: 프로그래밍 지원 사업</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개관 선정 지원</li> <li>인센티브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개관 선정 지원</li> <li>인센티브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개관 선정 지원</li> <li>인센티브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개관 선정 지원</li> <li>인센티브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li> <li>예술·클래식 극장을 별도 선정하여 고령자 극장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li> </ul>

#### 2)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내용

2011년까지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의 방식은, 영진위가 매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술영화전용관을 대상으로 좌석 규모 200석 한도 내에서 연간 좌석점유율의 6~8%까지를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지원을 받는 예술영화관들은 연간 219일의 예술영화쿼터, 73일의 한국예술영화쿼터 등으로 규정된 의무 조항을 준수하는 방식이었음. 단관 및 멀티플렉스 예술영화전용관까지 포함하여 지원하였음. 쿼터 일수에 포함되는 예술영화에 대한 인정 여부는 영진위 예술영화인정심사를 통해 결정됨. 예술영화와 비예술영화의 교차상영은 쿼터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일(全日) 예술영화를 상영했을 경우 쿼터 일수로 계산함.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현재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의 규모, 심사방법, 의무상영일수, 지원금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음.

13) 2015년 발표 당시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영화배급협회가 지정한 48편의 영화 중 24편을 골라 평일 저녁 및 주말에 상영하는 극장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임. 참조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716>

예술영화전용관	지원대상	
	지원규모	•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 전국 28개 내외 • 관당 52.8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 전년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원 예정
고령자를 위한 클래식영화 전용관	지원대상	
	지원규모	• 고령자 대상 예술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 전국 2개 내외 • 관당 52.8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 전년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원 예정
지원 총액		15.84억원

운영지원금은 좌석수 100석 이상 극장을 기준으로 53,520,000원을 지급함.

- ① 연간프로그램 기획비는 36,000,000원을 기본으로 지급함.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인건비, 작품 상영비, 프로그램 홍보/마케팅비(3,000,000원 × 12개월))
- ② 100석 이상 기준 좌석 점유율 지원금은 17,520,000원임.
  - 100석 이상일 경우: 100석 × 20% × 219일 × 4,000원(부율)
  - 100석 이하일 경우: 00석 × 20% × 219일 × 4,000원(부율)
  - (예: 50석인 경우, 50 × 20% × 219 × 4,000 = 8,760,000원)

지원금 사용 용도는 홍보/프로그래밍비, 영사/매표장비 대여료 및 유지비, 상영관 임대료, 부금액 지급, 운영인력 인건비 등 예술영화전용관 활성화 및 관객확대의 용도로 집행 가능함. 부금액은 당해 예술영화·독립영화 상영작에 한해 지급 가능함.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래밍 용도에 한함. 그 외 시설관리/운영비, 극장 비품 구입비, 식/음료비 등은 집행 불가.

기존 지원 극장의 심사 항목은 총점 100점 중 예술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 상영관 홍보 실적 등 기준사업수행능력(40점), 예술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 상영관 홍보 계획, 구성 인력의 전문성 등 사업계획(50점),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10점) 으로 구성됨.

신규 극장의 경우 총점 100점 중 사업수행능력(20점), 사업계획(55점), 파생 효과(10점), 영사음향 시설의 성능(9점), 상영관 환경의 적절성(6점) 등으로 구성됨.

예술영화전용관 신청자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영화관상영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 및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된 상설상영관고령자를 위한 클래식영화전용관 (최근 3년 평균 관람요금 2,500원 이하인 영화관)임. 극장별 최대 2개 상영관까지 공모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최대 2개 상영관까지 지원 가능. 멀티플렉스 상영관도 공모 접수 가능하나 문체부 지정승인 독립·예술영화전용상영관 중 해당 지역에 일반극장(지역 단관극장 등)이 부재한 지역에 한하며 수도권은 모두 제외함.

예술영화전용관들은 의무상영일수를 지켜야 함. 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한 작품을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365일 중 219일 이상) 상영하고, 연간 상영일수의 20% 이상(73일 이상) 한국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여야 함. 단, 한국 독립·예술영화 의무 상영일수 중 70% 이상(51.1일) 독립영화를 상영하여야 함. 고령자를 위한 클래식영화전용관은 한국 독립·예술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적용하되, 독립영화 의무상영일수 적용에서는 제외함. ‘예술영화’, ‘독립영화’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은 기타영화로 간주함.

최근 5년간 지원 현황은 아래 [표 27]과 같음.

연도	지원관 수	지역	수도권	지역 비율	단관극장 지원관수(비율)	멀티플렉스 지원관수(비율)	총 지원금액(원)
2017	21	9	12	42.8%	20 (95%)	1 (4%)	954,875,850
2018	24	9	15	37.5%	24 (100%)	1 (4%)	1,019,728,100
2019	19	7	12	36.8%	19 (100%)	0 (0%)	1,305,576,510
2020	22	8	14	36.3%	22 (100%)	0 (0%)	1,319,999,940
2021	23	7	16	30.4%	23 (100%)	0 (0%)	1,275,240,000
총계	109	40	69		108 -	2 -	5,875,420,400
평균	21.8	8	13.8	36.7%	21.6 (71%)	0.2 (4%)	1,175,084,080

2017년부터 2021년 5년 동안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사업은 총109개 극장(스크린)에 총 58억여 원이 지원되었음. 평균 매년 21.8개 극장(스크린)에 지원되었고, 평균 약 53백만 원이 극장 별로 지원되었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의 내용이 자주 변경되고 2016년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 등 급작스러운 지원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열악한 예술영화전용관의 상영 환경이 더욱 악화됨. 운영지원금으로 시설 개보수가 안 되며, 설비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5년 씨네코드 선제가 누적 적자(임대료) 및 설비 노후를 이유로 폐관함. 이후 2018년 줄줄이 부산의 아트씨어터 씨앤씨와 국도극장이 폐관함.

운영 지원금을 받는 예술영화전용관은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다가 2021년에 들어서는 30%대로 떨어지게 됨. 예술영화전용관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하여, 지역 인센티브가 필요함.

메가박스제주 2018년까지 지원을 받다가 이후 지원이 중단됨. 현재 제주도에 지원금을 받는 예술영화전용관이 한 곳도 없음.

서울에서는 재개관 준비(개보수중) 중인 KT&G 상상마당이 임시휴업중임.

새로 개관한 예술영화전용관의 대부분이 수도권인 상황에서 수도권의 예술영화전용관에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예술영화전용관은 폐관하는 상황이 되어버림.

지역의 예술영화전용관 숫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할당하여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설립 지원이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8 2021년도 수도권 및 지역의 지원금 비율**

연도	극장구분	매출액(A)	지원금(B)	총매출액(A+B)	총매출액 중 지원금비율
2021년	전체	1,373,450,583	1,275,240,000	2,648,690,583	48.1%
	지역	280,432,000	434,737,920	715,169,920	60.8%
	수도권	1,093,018,583	840,502,080	1,933,520,663	43.4%

2021년도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들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극장들의 매출액은 지원금을 넘어서 지원금 비율이 총 매출액의 43.4%를 차지하며,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지역의 예술영화전용관들은 극장 매출액이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며, 총 매출액 중 지원금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등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예술영화전용관의 형태를 유형화하면 크게, ① 지자체 지원 예술영화관(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인디플러스 천안 등) ② 민간 예술영화전용관(아트하우스모모, 광주극장, 허리우드클래식 등) ③ 멀티플렉스 예술영화관(롯데센텀시티, CGV인천, 압구정, 오리 등)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눔.

**3) 예술영화전용관의 운영 현황**

**표 29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내역 목록 (2014년~2021년)**

연도	상영관명	지원금액	관람객수	좌석수
2014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72,270,000		
2014	KT&G상상마당시네마	24,423,154		
2014	씨네코드 선재	72,270,000		
2014	허리우드클래식	68,985,000		
2014	국도엔가람예술관	49,073,794		
2014	KU시네마테크	59,261,400		
2014	아트하우스 모모 1관	55,467,226		
2014	아트하우스 모모 2관	55,467,226		
2014	필름포럼 1관	40,947,525		
2014	추억극장 미림	55,845,000		
2014	아트나인 0관	43,000,650		
2014	아트나인 9관	35,321,963		
2014	영화공간주안 2관	31,457,160		
2014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26,776,036		

연도	상영관명	지원금액	관람객수	좌석수
2014	광주극장	68,985,000		
계	15개관	759,551,134	집계내역	없음
2015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41,131,000		98
2015	아트하우스 모모 1관	40,750,500		
2015	아트하우스 모모 2관	35,430,000		
2015	씨네아트 리즘	32,921,500		
2015	KU시네마테크	46,754,500		
2015	KU시네마트랩	45,538,500		
2015	필름포럼 1관	38,394,000		
2015	영화공간주안 1관	41,890,000		
2015	영화공간주안 2관	50,402,500		
2015	국도엔가람예술관	44,322,500		
2015	대전아트시네마	47,818,000		
2015	동성아트홀	42,270,000		
2015	아트씨어터 씨앤씨	46,526,000		
2015	안동중앙아트시네마	49,262,000		
2015	에무시네마 1관	29,881,500		
2015	CGV청주2관	24,154,500		
2015	CGV당진7관	26,776,500		
2015	CGV여수웅천7관	21,418,500		
2015	롯데시네마서산7관	25,579,500		
2015	롯데시네마구미10관	24,040,500		
2015	메가박스원주9관	26,890,500		
2015	메가박스제주7관	22,330,000		
계	22개관	804,482,500	집계내역	없음
2016	미교부			
2017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49,340,000	9,678	115
2017	씨네아트 리즘	39,145,550	9,714	51
2017	안동중앙아트시네마	49,340,000	5,918	144
2017	동성아트홀	49,340,000	11,857	126
2017	대전아트시네마	49,340,000	8,472	150
2017	아트씨어터 씨앤씨	49,340,000	5,185	폐관
2017	국도엔가람예술관	49,340,000	15,172	폐관
2017	KU시네마테크	49,340,000	33,512	152
2017	KU시네마트랩	49,340,000	23,826	
2017	에무시네마 1관	38,937,500	12,453	50
2017	아트하우스 모모 1관	49,340,000	30,659	138
2017	아트하우스 모모 2관	49,340,000	35,204	138

연도	상영관명	지원금액	관람객수	좌석수
2017	필름포럼 1관	47,259,500	21,026	90
2017	필름포럼 2관	39,353,600	14,203	52
2017	아트나인 0관	47,675,600	74,282	92
2017	아트나인 9관	40,601,900	52,178	58
2017	영화공간주안 1관	49,340,000	9,063	
2017	영화공간주안 2관	49,340,000	8,413	
2017	추억극장 미림	49,340,000	51,826	283
2017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48,923,900	35,604	98
2017	메가박스제주 7관	11,558,300	19,878	
<b>계</b>	<b>21개관</b>	<b>954,875,850</b>	<b>488,123</b>	
2018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50,720,000	7,760	115
2018	씨네아트 리즘	43,735,200	8,455	51
2018	안동중앙아트시네마	52,320,000	4,086	144
2018	대전아트시네마	50,720,000	4,972	150
2018	더숲아트시네마 1관	37,008,000	19,872	42
2018	KU시네마테크	50,720,000	15,637	152
2018	아트하우스 모모 1관	55,520,000	28,800	138
2018	아트하우스 모모 2관	55,520,000	24,488	138
2018	필름포럼 1관	50,568,000	15,909	90
2018	필름포럼 2관	45,510,400	10,357	52
2018	아트나인 0관	54,118,400	58,751	92
2018	아트나인 9관	48,161,600	43,241	58
2018	영화공간주안 1관	55,520,000	7,105	136
2018	영화공간주안 2관	55,520,000	6,928	
2018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55,169,600	34,081	98
2018	메가박스제주 7관	49,120,000	8,543	
2018	광주극장	47,520,000	20,623	200
2018	동성아트홀	24,632,000	13,770	126
2018	에무시네마 1관	22,704,300	10,597	50
2018	에무시네마 2관	19,592,600	4,093	52
2018	천안낭만극장	23,832,000	18,522	170
2018	추억극장미림	23,832,000	52,390	283
2018	허리우드클래식	23,832,000	13,044	
2018	안산명화극장	23,832,000	25,342	199
<b>계</b>	<b>24개관</b>	<b>1,019,728,100</b>	<b>457,366</b>	
2019	동성아트홀	75,155,130	21,265	126
2019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82,366,840	11,016	115
2019	헤이리 시네마	41,256,000	12,083	30

연도	상영관명	지원금액	관람객수	좌석수
2019	안동중앙아트시네마	67,943,420	5,128	144
2019	씨네아트 리즘	59,358,620	12,407	51
2019	KU시네마테크	75,155,130	15,277	152
2019	광주극장	96,790,270	22,437	200
2019	대전아트시네마	67,943,420	6,459	150
2019	에무시네마 1관	44,935,200	12,618	50
2019	에무시네마 2관	81,168,960	11,703	52
2019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82,016,440	40,066	98
2019	영화공간주안 3관	67,593,020	8,728	136
2019	아트나인 0관	80,965,240	55,737	92
2019	아트나인 9관	46,161,600	41,853	58
2019	필름포럼 1관	73,403,130	16,711	90
2019	필름포럼 2관	45,110,400	11,841	52
2019	추억극장미림	75,155,130	51,221	283
2019	아트하우스 모모 1관	89,578,560	25,154	138
2019	아트하우스 모모 2관	53,520,000	25,599	138
<b>계</b>	<b>19개관</b>	<b>1,305,576,510</b>	<b>407,303</b>	
2020	더숲 아트시네마 1관	43,358,400	10,094	42
2020	더숲 아트시네마 2관	65,918,880	10,523	40
2020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67,266,520	5,427	115
2020	대전아트시네마 1관	62,684,350	2,922	150
2020	아트하우스 모모 1관	53,520,000	6,216	138
2020	아트하우스 모모 2관	71,848,700	4,387	138
2020	안동중앙시네마	62,684,350	2,748	144
2020	KU시네마테크	67,266,520	7,522	152
2020	동성아트홀	62,684,350	10,121	126
202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80,662,650	8,762	98
2020	광주극장	76,430,880	11,715	200
2020	에무시네마 1관	63,263,900	8,289	50
2020	에무시네마 2관	45,110,400	7,290	52
2020	미림극장	62,684,350	21,087	283
2020	필름포럼 1관	51,768,000	4,751	90
2020	필름포럼 2관	45,110,400	4,056	52
2020	허리우드 클래식	62,684,350	34,445	300
2020	헤이리시네마	55,002,520	7,777	30
2020	인디플러스 천안	44,760,000	2,478	50
2020	아트나인 0관	70,447,100	25,729	92
2020	아트나인 9관	46,161,600	17,347	58



연도	상영관명	지원금액	관람객수	좌석수
2020	씨네아트 리좁	58,681,720	5,282	51
계	22개관	1,319,999,940	218,968	
2021	KU시네마테크	61,485,360	8,017	152
2021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66,795,600	5,207	115
2021	광주극장	64,140,480	13,277	200
2021	대전아트시네마	58,830,240	2,074	137
2021	더숲 아트시네마	51,323,760	8,509	42
2021	더숲 아트시네마	43,008,000	8,982	40
2021	동성아트홀	61,485,360	5,533	126
2021	라이카시네마	42,832,800	8,388	39
2021	영화극장	53,520,000	11,704	199
2021	씨네아트 리좁	50,245,440	2,955	51
2021	아트나인 0관	62,738,880	24,025	92
2021	아트나인 9관	46,161,600	15,618	92
2021	아트하우스모모 1관	58,830,240	3,426	138
2021	아트하우스모모 2관	53,520,000	3,419	138
2021	안동중앙시네마	64,140,480	2,858	144
2021	에무 시네마 앤 카페	58,210,800	9,332	51
2021	에무 시네마 앤 카페	45,110,400	7,291	52
2021	영화공간주안	61,485,360	2,935	136
2021	인천미림극장	58,830,240	19,140	283
2021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69,100,320	7,975	98
2021	필름포럼 1관	57,078,240	3,166	90
2021	필름포럼 2관	45,110,400	2,672	52
2021	헤이리시네마	41,256,000	5,392	30
계	23개관	1,275,240,000	181,895	

2022년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상영관이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영진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예술영화전용관은 주로 멀티플렉스 극장의 예술영화전용관이거나, 운영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예술영화전용관임.

2019년까지 40만 명에 달했던 해당 예술영화전용관의 전체 관객수는 코로나19 이후 20만 명이 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짐. 2022년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됨.

2021년도에 관객수 2만 명을 넘긴 극장은 아트나인 0관 한 곳뿐이며, 1만 명을 넘긴 극장은 모두 다섯 곳으로, 광주극장 한 곳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에 위치한 극장들임.

극장별 운영 및 지원 현황

①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2012년 개관. 강릉 영화단체인 강릉씨네마떼끄가 설립한 강릉 최초 유일의 민간 예술영화전용관. 좌석수 115. 2021년 총 입장객수 5,399명. 독립예술영화 개봉 139편. 한국독립영화 152.95일 상영, 특별전 및 기획전 6회 개최. 강원영화제 헛시네마 페스티벌 운영 등 지역 사회 커뮤니티 극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49,340	50,720 심화사업(20,000)	82,366	67,266	66,795

② 광주극장: 광주 충장로에 위치. 1935년 개관하여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 좌석수 200석. 2002년 이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 총관객수 13,278명으로 관객수 면에서도 예술영화전용관 중 상위임. 기획전 7회 개최, 영화간판학교 운영 등 지역 친밀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작가들과 협업 진행.

연도	2018	2019	2020	2021
금액	77,520	96,790	76,430	64,140

③ 더숲 아트시네마: 노원구 노원역에 위치. 2016년 개관. 2019년부터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인증을 받아 영진위 지원금을 받기 시작함. 좌석수 총 82석, 요금은 주중 10,000원, 주말 11,000원. 2021년 13개의 기획전 및 GV 행사 진행. 노원구 유일의 예술영화전용관으로, 극장만이 아닌, 서점, 갤러리, 아카데미, 카페가 함께 모여 있는 복합 문화공간. 예술영화관들 중에서 가장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함.

연도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1관	43,358	51,323	43,358
	2관	65,918	43,008	78,444

④ 대전아트시네마: 대전시 동구 중앙로(옛 동보극장)에 위치. 2006년 4월 개관. 좌석수 150석. 15년째 대전에서 예술영화전용관을 지켜옴. 개봉관으로도 큰 역할을 하여 총 133편 개봉, 총 2,104명이 관람함. 정기상영회, 기획전 등으로 꾸준히 관객이 들어오고 있음.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49,340	50,720 심화사업(25,000)	67,943	62,684	58,830

⑤ 라이카시네마: 2021년 1월 개관. 서울 연희동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독'에 위치. 좌석수 39석, 티켓 가격은 주중 10,000원. 작지만 다양한 예술영화를 상영하며, 한국 독립영화 기획전, 장르 영화 기획전 등을 기획하여 운영함. 인근 대학교 졸업영화제 및 서대문구청의 지역 축제를 함께 진행하는 등 지역 친화적 프로그램을 구성.

연도	2019	2020	2021	2022
금액	-	-	42,832	78,269

⑥ 씨네아트 리즘: 경남, 부산지역 유일한 예술영화전용관. 창원시에 위치. 다양한 특별전 및 지역 밀착형 기획전을 진행. 씨네클럽 및 영화강좌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관객 확대에 힘쓰고 있음. 좌석수 51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39,145	43,735 심화사업(13,000)	59,358	58,681	50,245

⑦ 아트나인: 0관과 9관 두 곳이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서울 이수역에 위치. 좌석수 각각 92석과 58석. 각종 기획전 및 개봉작품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영화 관객을 보유한 예술영화전용관임. 극장주가 수입, 배급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수입작품을 극장에 상영 가능함.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관	47,675	54,118 심화사업(24,000)	80,965	70,447	62,738
	2관	40,601	48,161	46,161	46,161	46,161

⑧ 아트하우스 모모: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내 위치. 좌석수 1관 138석. 다양한 기획전과 특별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 행사를 많이 유치하여 진행함. 대학생 대상 이벤트 개최 등으로 꾸준한 관객을 유지하고 있음. 극장 내 체험 이벤트 등을 제안하고 진행함.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관	49,340	55,520 심화사업(24,000)	89,578	53,520	58,830
	2관	49,340	55,520	53,520	71,848	53,520

⑨ 안동중앙시네마: 좌석수 144석. 경북지역 유일의 예술영화전용관. 개봉작 133편 상영, 한국예술영화 16편, 외국예술영화 73편, 한국독립영화 44편 상영. 야외상영전 및 예술영화동아리 모임 운영. 지역 내 커뮤니티 영화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49,340	52,320 심화사업(13,000)	67,943	62,684	64,140

⑩ 영화공간주안: 인천 미추홀구 주안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위치. 인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다른 예술영화전용관과 같은 기획전 및 독자적인 지역 밀착형 기획전을 상영하고 있으며, 유료 관객수도 1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좌석수 1관, 2관 각각 136석.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관	49,340	55,520	67,593	-	61,485
	2관	49,340	55,520	-	-	-

⑪ 에무시네마: 서울 종로구 경희궁 옆에 위치. 복합문화공간으로 카페 등과 함께 있음. 외국인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한국 독립예술영화 영어 자막 상영 등 지역 특징을 살린 상영 지속. 좌석수는 1관, 2관 각각 51석, 52석.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관	38,937	22,704 심화사업(30,000)	44,935	63,263	58,210
	2관	-	19,592	81,168	45,110	45,110

⑫ 인천미림극장: 운영난으로 2004년 폐관 후 2013년 재개관함. 고령자 대상 영화관으로 시작하였다가 최근 수년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중. 고령자 대상 입장료는 2500원임. 고전영화 상영 및 한국독립영화 개봉. 지역 밀착형 사업 다수 진행. 고정관객이 많고 정기적으로 일본영화상영전을 지속하고 있음. 좌석수 283석.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49,340	23,832 심화사업(27,000)	75,155	62,684	58,830

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전주시에 위치.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 좌석수 98석. 코로나19 이전 관객수 3만명, 이후에도 1만명 정도의 관객을 유지하는 전북지역 유일의 예술영화전용관.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48,923	55,169 심화사업(25,000)	82,016	80,662	69,100

⑭ KU시네마테크: 서울 건국대학교 내 위치. 좌석수 152석. 오렌지 필름 기획전, 왕가위 감독전, 크리스티안 페츨트 기획전 등은 다른 예술영화전용관과 비슷함. 대학 내 다양한 영화제 및 행사가 많이 열림.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98,680	50,720	75,155	67,266	61,485

⑮ 필름포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예술영화전용관 1관과 2관 두 곳이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을 받고 있음. 각각 좌석 수는 90석과 52석. 꾸준한 관객을 유지하면서 신촌, 이대 일대의 안정적인 관객층을 형성하고 있었음. 2019년까지 3만 명에 육박하던 관객 수가 2021년 5,000명대로 급감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영화를 상영하며, 신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국 예술, 독립영화에 영어 자막을 삽입하여 상영함.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관	47,259	50,568 심화사업(24,000)	73,403	51,768	57,078
	2관	39,353	45,510	45,110	45,110	45,110

⑯ 헤이리시네마: 경기도 파주에 위치. 카페 3층에 위치하며, 30석의 작은 규모임. 수요일에는 한국영화 5,000원 할인 상영. 지역 할인 제도를 운영하여 꾸준히 지역민들의 관람 유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	-	41,256	55,002	41,256

⑰ 명화극장: 안산의 명화극장은 고령자대상 클래식영화전용관으로 2021년부터 지원받기 시작함. 일명 실버영화관으로 불림. 고령자 대상으로 2,500원의 입장료를 받음. 서울에서 운영하다가 안산으로 옮겼지만, 고정 관객층이 꾸준히 찾는 영화관임. 안산 지역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친화적 행사를 다수 진행함.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	23,832,000	-	-	53,520,000

전용관	기획전 제목	상영작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씨네토크, 왕가위 특별전	세자매, 정말 먼 곳, 당신의 사월, 우리 매일매일, 박강아름 결혼하다, 코다, 최선의 삶, 노화찬6411, 열혈남아, 아비정전, 일대중사, 중경삼림, 타락천사, 2046, 해피투게더, 동사서독 리덕스, 화양연화 등
	코로나19 극복기획전	갈매기, 까치발, 천춘선거, 휴가, 그림자꽃 뽀뽀마방, 에듀케이션, 클라이밍 등
광주극장	빔 벤더스 특별전, 입바스 키아로스타미 회고전, 원데이시네마, 스웨덴 영화제, 광주 프랑코포니 영화제, 광주극장 영화제	도시의 앨리스, 시간의 흐름 속으로, 미국인 친구, 사물의 상태, 파리 텍사스, 베를린 천사의 시, 멀고도 가까운, 여행자, 클로즈업,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체리 향기, 올리브 나무 사이로, 키아로스타미의 길 등
	하마구치 류스케 스페셜, 개봉작 등	드라이브 마이 카, 해피 아워, 친밀함, 열정,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정말 먼 곳, 당신의 사월 등

전용관	기획전 제목	상영작
대전아트시네마	시네마테크 아카이브 정기 상영회, 코로나19 극복특별기획전, 2021 부산단편영화제 순회상영회, 크리스티안 페츨트 기획전, 오즈야시지로, 구로사와 기요시, 기타노 다케시 특별전	여행자, 체리향기,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주리라,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오프닝 나이트, 낭트의 자코, 피안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흠어진 밤, 청춘선거, 생각의 여름, 로그북, 피닉스, 웬디 등, 고래사냥, 트랜짓, 아멜리에, 몽상가들, 열망, 바바라, 피닉스 등
더숲 아트시네마	영혼의 단짝 (장예모 공리), (주성치 오맹달), (기타노 다케시 히사이시 조), 문화가 있는 날	홍등 귀주이야기, 인생, 붉은 수수밭, 서유기: 월광보함, 서유기2: 선리기연,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기쿠지로의 여름, 화양연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타락천사, 2046, 아비정전, 패왕별희, 아무도 없는 곳, 자산어보, 노매드랜드, 더 파더, 미나리 등
	장국영 특별전, 2019, 20 키네마준보 일본영화 선정작 상영전, 희곡원작 특별 상영 등	스파이의 아내, 분하구의 두 사람, 아비정전, 동사서독 리덕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제로 디그리, 더 파더, 시저는 죽어야 한다 등
동성아트홀	29년 역사, 2021년까지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지원을 받다가 폐관 예정. 대구 유일의 예술영화전용관.	
라이카시네마	한국독립영화 감독전: 김종관, 남궁선, 이충현	김종관 감독 단편선, 더 테이블, 아무도 없는 곳, 최악의 하루 등
	이화여자대학교 영화동아리 누에 영화제	일상이변, 해빙선 등
	서대문독립민주영화제	헝거 유관순 이야기, 아이 캔 스피크, 동주,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1987, 아들의 이름으로, 좋은 빛 좋은 공기, 오직 사랑뿐
	크리시안 페츨트 기획전 등 기타	엘라, 열망, 바바라, 트랜짓, 피닉스, 운디네, 미나리, 윤희에게, 아워 미드나잇, 휴가
미림극장	일본영화 상영회, 가치함께 시네마, 별별시네마	대장 부리바, 엄마와 공책,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내 머릿속의 지우개, 오즈의 마법사, 연산군, 매일매일 알초하이머, 황야의 7인, 서울의 휴일, 감쪽같은 그녀, 까치발, 흠어진 밤, 박강아름 결혼하다, 그대 너머에 등
	일본영화 상영회 공동주최, 동아시아영화제 주관, 인천독립영화제 공동주최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더 한복판으로, 이바라키의 여름, 이어지는 여행, 휴가,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 등
씨네아트 리움	왕가위 특별전, 2021 아카데미 기획전, 2021 부마민주영화제,	일대중사, 해피투게더, 동사서독, 열혈남아, 타락천사, 2046, 화양연화, 더 파더, 미나리, 소년시절의 너, 프라미싱 영우먼, 스파이의 아내, 크레센도, 좋은 빛 좋은 공기, 가버나움, 올리버 섹스, 아담, 세자매 등
아트나인	정기기획전: 옛나인 일본영화기획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전, 라스 폰 트리에의 킹덤, 짐자무쉬의 모든 것, 알프레드 히치콕, 장국영 배우전, 레오스 카락스 감독전, 만춘, 오차츠키의 맛, 동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가을 햇살, 꿈치의 맛 등
	비정기 기획전: 클래식나인, 닥스나인, 시네마 테라스	아이 엠 러브, 콜드 워,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그레이트 뷰티, 그을린 사랑,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동글고 동글게, 서칭 포 슈가맨, 니키리라고도 알려진, 김복동, 아무도 없는 곳, 화양연화, 중경삼림, 해피 투게더, 타락천사, 아비정전, 이도 공간, 메기, 고양이를 부탁해 등

전용관	기획전 제목	상영작
아트하우스모모	프랑스 영화주간, 자유평등국어 미니 기획전, 민한기 감독 특별전, 시 읽는 영화관, 스웨덴 영화제 등	페르세 폴리스, 내 심장이 건너편 박동, 썸머 85, 캐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우리는 매일매일, 시 읽는 시간, 청춘선거, 열아홉, 메이드인루프탑, 최선의 삶, 박강아름 결혼하다, 미나의 선택, 스킴 버드, 언더독, 캣 워크 등
안동중앙시네마	2021 독립예술영화특별기획전, 음악예술영화제,이탈리아클래식영화제, 극장전&거장전: 오즈 야시지로 +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전, 518 특별기획전	당신의 사월, 치코와 리타, 어거스트 러쉬, 하늘의 황금마차, 프랭크, 어메이징 그레이스, 피아니스트의 전설, 황무지 5월의 고해, 아들의 이름으로 등
	영화비평인문강좌, 문화다양성주간 상영 및 GV, 영농패밀리 야외상영 및 GV진행	미나리, 무스탕 가는 길, 시 읽는 시간, 밥정, 라스트 썸, 학교 가는 길, 그대 너머에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로그북, 갈매기 액션히어로, 모리타니안, 잘리카투, 동백, 종착역, 노회찬6411 등
영화공간 주안	정기상영(영화공간 주관 인생영화),	세자매, 미나리, 더 파더, 빅피쉬, 크레센도, 코다, 아네트 등
	기획전(스웨덴영화제, 순회상영전, 프랑스 영화주간)	삶의 끝에서 나는 대화, 부영이, 벨라, 혈연, 쥐뢰, 조지아, 달팽이, 우리가 꽃들이라면, 신의 달은 춤을 춘다, 아멜리에, 다가오는 것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렛 더 선사인 인 등
에무시네마	크리스티안 페츨트 감독전, 미니 기획전, 히치콕과 왕가위, 코로나19 극복, 중소영화관 및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특별 기획전, 한국 독립예술영화 감독 기획전, 별빛영화제 야외상영	요요현상, 잔칫날,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만추, 빛과 철, 아이, 파이터, 인천스텔라, 정말 먼 곳, 시 읽는 시간, 아무도 없는 곳, 비밀의 정원, 메이드 인 루프탑, 우리는 매일매일, 갈매기, 최선의 삶, 종착역, 휴가, 뿌띠 마방, 라임크라임, 너에게 가는 길 등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2021 문화다양성영화제, 시네마&카페 홍보 진행	가을의 마티네, 걸, 아이 엠 우먼, 키드, 캐롤, 해피투게더, 살아남은 사람들, 미나리, 암모나이트, 어른들은 몰라요, 꼬끼리와 나비,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퍼스트 카우, 로그 인 벨지움 등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전주쇼케이스, 픽업시네마, 전주아트톡, 개봉영화감독 초청 GV	갈매기, 더스트맨, 성적표의 김민영, 너에게 가는 길, 십개월, 희수, 페어웰, 밤빛, 레 미제라블, 비커밍 아스트리드, 낮아웃, 프란시스 하, 비긴 어게인, 패터슨, 정말 먼 곳, 죽어도 좋은 경험, 자마, 당신 얼굴 앞에서 등
KU시네마테크	다보영 프로젝트, 오렌지 필름, 낯땀뺀 필름 단편영화 상영회, 왕가위 감독전, 김종관 감독 기획전, 크리스티안 페츨트 감독전, 프랑스 영화주간 Save our cinema 캠페인 등	동사서독 리덕스, 에로스: 왕가위 감독 특별판, 화양연화, 해피투게더,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로 디그리, 2046, 더 테이블, 아무도 없는 곳, 최악의 하루, 피닉스, 운디네, 바바라, 트랜짓 등
필름포럼	필름 포럼 픽, 가을정기 기획전 관계의 재구성, 추상미 이무영의 시네마브런치 등	요요현상, 아이, 부활, 박강아름 결혼하다, 퍼스트 카우, 행복의 속도,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등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상영, 2021 아카데미 기획전	가나안 김용기, 비베뜨의 만찬, 십계, 존텐버 죽이기, 아버지의 길, 노매드랜드, 소울, 더 파더, 미나리, 레 미제라블 등
헤이리시네마	경기인디시네마 한국독립영화 무료 상영회	흠어진 밤, 종착역, 라임크라임, 싸나희 순정,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소설가 구보의 하루
	오즈 야시지로 기획전, 헤이리시네마 국제단편영화제, 페츨트 감독전, 프랑스 영화주간	바바라, 내가 속한 나라, 엘라, 열망, 노트르담, 임파서블 러브,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동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차츠키의 맛, 만춘, 여름날



전용관	기획전 제목	상영작
영화극장 (예술·클래식)	바이블 영화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영화제, 개봉작과 함께하는 2021 Summer 기획전, 장예모 감독 특별기획전	바라바, 아픈만큼 사랑한다. 다윗과 밧세바, 에스더와 왕, 십계, 기적, 울지마 톤즈2, 삼손과데릴라, 파계, 소동과 고모라, 왕중왕, 순종, 벤허, 퀴바디스, 동백, 사제로부터 온 편지, 내일을 위한 길, 리오부라보, 자이언트, 이유없는 반항, 한니발, 썰, 전주에서 길을 묻다, 우리는 매일매일, 발신제한, 이번엔 잘 되겠지, 모가디슈, 인생, 흥등, 귀주이야기, 붉은 수수밭 등

#### 4) 지역별 예술영화전용관 분포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

그림 5 지역별 예술영화전용관 분포



©크리에이티브스

- ① 서울 지역: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 영화전용관은 서울에만 14개관임.
- ② 인천지역: 인천미림극장과 영화공간 주안이 인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있음.
- ③ 경기도 지역: 영화극장, 헤이리시네마 두 곳이 각각 안산과 파주에 위치하고 있음.
- ④ 대전, 충남 지역: 대전아트시네마와 인디플러스 천안이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⑤ 대구, 경북 지역: 대구의 동성아트홀과 안동의 안동중앙시네마 두 곳이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⑥ 부산, 경남 지역: 현재 경남과 부산 지역을 통틀어 유일한 예술영화전용관은 씨네아트 리즘 한 곳뿐임. 부산에는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이 독립예술 전용관으로 운영 중임.
- ⑦ 광주, 전남 지역: 광주극장이 유일한 예술 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⑧ 강원지역: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이 예술 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48 지역별 예술영화전용관 분포 현황 (2021년)

	지역	극장명	상영관	좌석수
1	서울	KU시네마테크		152
2		더숲아트시네마		42
3		더숲아트시네마		40
4		라이카시네마		39
5		에무시네마 앤 카페		51
6		에무시네마 앤 카페		52
7		아트나인	0관	92
8		아트나인	9관	92
9		아트하우스모모	1관	138
10		아트하우스모모	2관	138
11		필름포럼	1관	90
12		필름포럼	2관	52
13	경기	헤이리시네마		30
14		영화극장		199
15	인천	인천미림극장		283
16		영화공간주안		136
17	광주	광주극장		200
18	전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98
19	강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115
20	대구	동성아트홀		126
21	경북	안동중앙시네마		144
22	경남	씨네아트 리즘		51
23	대전	대전아트시네마		137



Korean  
Film  
Council

## 제4장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성과와 문제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 04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성과와 문제점

### 4.1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성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은 한국영화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멀티플렉스 및 대형영화가 독점하는 영화산업 내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문화공공재로서의 영화라는 인식을 더욱 확대함.

#### 1) 독립·예술영화의 안정적인 상영기반 마련

2017년 이후 독립·예술영화의 안정적인 상영기반 마련

- 예술영화전용관의 운영 의무 사항에 한국 예술영화 및 한국 독립영화의 상영일수를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됨.
- 독립영화전용관의 경우, 2008년 서울 1개 전용관으로 시작하여 2022년 현재 7개관이 지원을 받고 있음.
- 예술영화전용관의 경우, 2002년 서울 1개관, 광주 1개관에서 시작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이, 2010년 32개까지 확대되었으며(멀티플렉스 포함), 2020년대에 들어 22~23개관(멀티플렉스 제외)까지 안정적으로 지원 시스템이 확대되었음.

#### 2) 상영공간의 지역적 확대

지역 관객들에게 독립·예술영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11개 광역시/도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 사업 초기 CGV 무비콜라주, 롯데 아르떼 등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의 예술영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고, 2017년 이후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각 지역의 단관 극장들에 지원하게 됨.(전용관이 부재한 제주의 경우 메가박스 예술영화전용관 지속 지원)

— [표 49]에서 보듯이 전체 독립·예술영화 시장의 확대로 상영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용관의 전국적 확대 및 상영 공간 확보로 전체 독립·예술영화가 전국에서 개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547	566	459	423	507
한국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129	139	142	141	170

### 3) 지역의 영화 문화 다양성 확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그래밍 진행

— 각 지역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역 친밀도를 높이는 기획전을 통해 지역 영화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음. 영진위의 프로그램 기획전 지원 등을 활용하여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문화가 지역으로 확대되는 역할을 함. 지역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4) 클래식영화전용관을 마련하여 고령자 문화 복지 확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내에서, 고령자의 영화문화 복지 확대를 위하여 클래식영화 전용관까지 지원을 확대하여(2020년), 노인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2,500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함.

— 해당 영화관들은 예술영화전용관의 지원과는 차별화하여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해석해야 하며,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 있음.

### 5) 기획, 프로그래밍의 강화

독립·예술영화관에 전문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한국과 외국의 예술영화 숫자가 증가하고 아트하우스 영화시장이 확대되면서 기획과 프로그래밍이 강화됨. 인디스페이스의 기획이 전국 독립영화전용관들에 확대되는 좋은 예가 있음. 독립·예술영화 시장의 확대 속에서 이러한 프로그래밍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필요. 이어서 독립·예술영화가 담론화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4.2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문제점

사업 초기부터 줄곧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고, 예술영화 관객의 감소, 서울과 지역의 격차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년이 흘러 옴. 한국 내 독립·예술영화 시장은 수입 영화의 양적 확대로 2019년까지 확대되었지만, 코로나19로 전체 산업이 위축되면서 극장의 경영 악화가 더욱 가속화 됨.

### 1)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낮은 예산

부침을 거듭하던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이 2017년 이후 안정을 찾아서 현재 30여개 스크린에 운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상영이 과거에 비해 안정화 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지원 사업이 전체 예산이 낮으므로, 지원할 수 있는 극장의 수가 한정되어 있음. 적은 예산의 보조금을 더욱 적은 극장이 나누어 받는 형태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금 총액	782,951,840	753,543,450	665,452,390	680,666,667	684,000,000
지원극장수	8	7	5	6	7
증감율	-	△3.7%	△11.6%	▲2.2%	▲0.4%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금 총액	954,875,850	1,298,728,100	1,305,576,510	1,319,999,940	1,275,240,000
지원극장수	21	24	19	22	23
증감율	-	▲36.0%	▲0.5%	▲1.1%	△3.3%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예산: 독립영화전용관의 경우 약 7개관이 6억 8400만원의 예산을 나누어 지원받고 있지만, 예술영화전용관의 경우 12억 7500만원의 예산을 23개 극장이 나누어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예술영화전용관의 경우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쿼터를 잘 준수하고 있고 [표 52]에 따르면 모든 전용관들이 의무상영일수를 초과하여 상영하고 있으므로 달성률은 모두 100%를 넘음.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영화전용관과 예술영화전용관을 나누어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음. 두 사업을 합쳐서 같이 지원하는 방법과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동시에 필요함.

**표 52 전용관의 의무상영일수 달성률 (2021년)**

	극장명	예술 독립영화 의무상영 일수	달성률	한국예술 독립영화 의무상영 일수	달성률	독립영화 의무상영 일수	달성률
1	광주독립영화관	-	-	-	-	213.6	159.0%
2	대전독립영화전용관 씨네인디U	-	-	-	-	217.7	147.5%
3	아리랑시네센터(서울)	-	-	-	-	202.5	134.3%
4	영화의 전당	-	-	-	-	198.6	145.9%
5	인디스페이스	-	-	-	-	216.5	154.9%
6	인디플러스 포항	-	-	-	-	147.6	104.9%
7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	-	-	-	217.8	134.8%
8	KU시네마테크	209.4	131.3%	69.8	145.0%	48.9	202.1%
9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197.4	160.6%	65.8	237.5%	46.1	332.1%
10	광주극장	217.8	158.4%	72.6	167.2%	50.8	238.1%
11	대전아트시네마	204.6	151.5%	68.2	207.1%	47.7	295.8%
12	더숲 아트시네마	217.8	142.8%	72.6	112.5%	50.8	138.9%
13	더숲 아트시네마	217.8	151.5%	72.6	113.5%	50.8	147.6%
14	동성아트홀	173.4	131.5%	57.8	119.4%	40.5	165.6%
15	라이카시네마	210.7	112.0%	70.2	123.4%	49.2	110.3%
16	영화극장	219.0	163.5%	73.0	298.9%	51.1	354.3%
17	씨네아트 리움	168.1	160.1%	56.0	154.1%	39.2	189.0%
18	아트나인	219.0	138.4%	73.0	127.1%	51.1	181.6%
19	아트나인	219.0	145.2%	73.0	150.2%	51.1	214.1%
20	아트하우스모모	93.6	146.4%	31.2	139.4%	21.8	195.0%
21	아트하우스모모	92.4	148.3%	30.8	179.1%	21.6	255.9%
22	안동중앙시네마	216.0	111.1%	72.0	160.3%	50.4	176.1%
23	에무 시네마 앤 카페	219.0	159.4%	73.0	133.8%	51.1	178.6%
24	에무 시네마 앤 카페	219.0	161.2%	73.0	142.9%	51.1	191.5%
25	영화공간주안	164.3	147.7%	54.8	165.6%	38.3	204.3%
26	인천미림극장	211.2	100.9%	70.4	114.2%	49.3	129.7%
27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56.0	165.4%	52.0	223.8%	36.4	298.7%
28	필름포럼	214.1	161.1%	71.4	138.2%	50.0	188.4%
29	필름포럼	212.8	159.1%	70.9	158.8%	49.7	222.8%
30	헤이리시네마	219.0	152.1%	73.0	154.1%	51.1	219.0%

## 2) 전용관 설립 지원 없음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이 2016년과 2017년도에 시행되었으나, 이는 운영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모든 지원 예산을 설립 지원에 돌려 버린 사업 운영 파행의 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부산), 인디플러스 천안, 인디플러스 포항, 판타스틱 큐브(부천)에 지자체와의 공동 지원으로 독립영화전용관이 새로 개관하게 된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설립 지원 사업에서, 선행 조건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자체와의 공동 지원이 우선 전제가 되었다는 점임. 2018년 설립 지원이 폐지된 것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임. 사업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지자체들과의 협조 및 선행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영진위의 조건이 민간단체,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어서, 각 단위의 공통된 방향성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sup>14)</sup>

현행 운영 지원 사업 전체의 문제는 독립영화전용관 및 예술영화전용관의 설립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 따라서 전용관 설립을 위한 지원이 신설되어 예산 배정이 운영지원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 3) 인센티브 제도의 허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은, 2021년을 기준으로 좌석수가 많은 영화관에 지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남.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심사 내용과 인센티브의 심사내용이 같음.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6.8). 제1조, 제3조 · 법의 목적에 '영상문화의 진흥'을 포함하고 영화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14조제25조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추가(제14조) ·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제25조)제38조의2제2항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문화 증진을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직접 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심사영역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사업주체 (100점)	사업수행 능력 (40점)	20점 예술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 - 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독창성 등
		20점 상영관 홍보 실적 - 홍보 실적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영관 활성화 및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지원 파생 효과(10점)	10점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사업계획 (50점)	20점 예술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 - 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독창성 등
20점 상영관 홍보 계획 - 홍보 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영관 활성화 및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구성 인력의 전문성		

— 인센티브 구성

사업수행 능력 (80%)	40%	예술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 - 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독창성 등
	40%	상영관 홍보 실적 - 홍보 실적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영관 활성화 및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지원 파생 효과(20%)	20%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예술영화전용관 인센티브 내용은 지원 심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임. 이러한 내용을 인센티브라고 할 수 없음. 인센티브 내용에는 지역 우대, 독립예술영화 상영실적 또는 좌석점유율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4)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서울과 지역의 격차 심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은 수도권과 지역이 처한 뚜렷한 차이에 따라 차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함. 현재 독립·예술영화의 상영과 향유는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드러내고 있음. 서울에서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안정적 상영을 위하여 극장을 지원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돌파구가 없음.

특히 예술영화관의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각각 1곳씩만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임. 강원 1곳, 대전 1곳, 충남 1곳, 대구 1곳, 경북 1곳, 광주 1곳, 전북 1곳, 경남

1곳이며, 그 밖의 지역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이 전무함. 충북, 울산, 세종, 제주, 부산에는 지원을 받는 예술영화전용관이 없음.

20년간 독립·예술영화관의 지역 격차는 심해졌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됨. 독립·예술영화관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 공간의 형태, 운영 주체의 성격, 관객의 성향까지 균일하지 않음.

연도	수도권	지방	총합	비고
2017	15 (51.7%)	14 (48.2%)	29	
2018	17 (54.8%)	14 (45.1%)	31	예술영화전용관 부산 2곳 폐관
2019	14 (56%)	11 (44%)	25	
2020	16 (57.1%)	12 (42.8%)	28	
2021	18 (60%)	12 (40%)	30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영진위의 내부 문제로 인하여 2015년과 2016년에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지원이 없었던 적도 있어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않음.

기존 독립 예술영화 관객의 노쇠화와 이탈로 인하여, 관객들의 숫자가 감소. 예를 들어, 창원 내 아트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은 상당한 규모의 시설에서 뮤지컬, 오페라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있지만, 예술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극히 좁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아야 하며, 좋은 환경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부산 영화의 전당까지 가야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함.<sup>15)</sup> 즉, 지역에서는 예술영화를 보기 위한 통로가 막혀 있고, 따라서 이탈하는 관객들이 생길 수밖에 없음.

2000년대 초중반까지 수도권과 지역의 지원 전용관 수가 비슷했던 것에 비해 2017년을 기점으로 지원 관의 증가는 수도권에 편중되었으며, 새로 개관하는 예술영화전용관은 주로 수도권에만 편재해 있음.

#### 5) 지원 극장 수 부족

지금까지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정책의 핵심은 점진적으로 지원금을 증가시키고,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 용처 규정을 두며,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쿼터를 신설한 것(연 50일)임. 그러나 이 정책으로 전용관의 확대 및 관객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운영난으로 폐관하는 극장들이 나오고 지원하는 극장 수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음.

15) 경남 창원의 유일한 예술영화전용관인 씨네아트 리츠의 하효선 대표 언급 (2022년 7월 부천국제영화제 포럼)



### 6)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재정 악화 해소 방안 필요

2019년 주요 예술영화전용관 중에 1년 동안 동원한 총 관객 수가 5만 명을 넘는 극장은 아트나인 0관과 추억극장미림 두 곳 뿐이며, 이는 예술영화와 일반영화 관객을 모두 합친 숫자임.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 들어서는 이마저도 반토막이 나서 총 관객 수가 2만 명이 넘는 극장은 아트나인 0관(24,025명) 한 곳, 인천미림극장이 19,140명만을 기록함.

독립·예술영화전용관들은 극장 수익이 아니라 지원금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극장 운영의 적자를 보전해왔음. 결국 극장에서의 티켓 판매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예술영화 산업의 붐업이 필요함. 단관 또는 3개관 이하의 소규모 영화관의 공간 홍보 및 문화공공재와 같은 극장의 의미를 확대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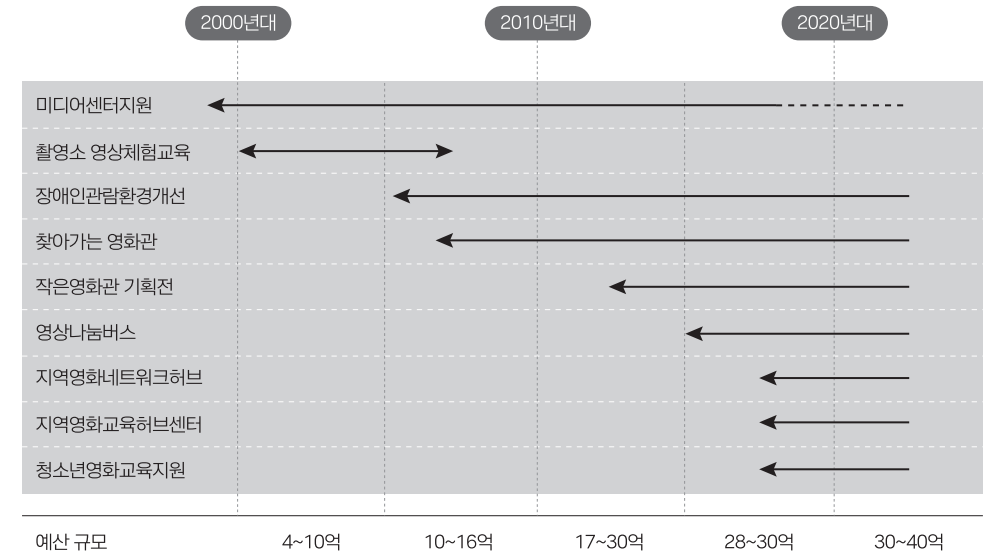
독립·예술영화전용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을 찾는 관객들이 늘어나지 않는 현재 시장상황에서 독립·예술영화전용관에서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함. 특히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독립·예술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여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임.

### 7)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작은영화관 지원 사업, 시네마테크 전용관 지원 사업, 지역미디어센터 등 지원 사업 시스템의 일원화 필요

‘독립·예술영화’라는 계몽적이고 교육적인 패러다임에 집착할 이유는 없음. 당위적으로 관객들에게 독립·예술영화를 보급해야 한다는 사고를 탈피하여,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인 극장을 지원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함.

현재 영진위가 진행하고 있는 기타 극장 지원 사업 전체를 놓고, 사업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음. 작은영화관 기획전 위탁사업, 시네마테크 전용관 지원사업(예산 연 4억 2천만원), 지역 미디어센터 지원 사업 등, 독립·예술영화상영과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

그림 6 극장 및 상영 관련 영진위 사업 추이 (2000~2021년 기준) (단위: 원)



출처: 영화문화 공공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2021

현재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과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의 차이는 1) (독립) 좌석수 200석 기준 75,040,000원(기획비 4,000만원) / (예술) 좌석수 100석 기준 53,520,000원(기획비 3,600만원),

2) 의무상영일수: (독립) 독립영화 상영일수 219일 이상 / (예술)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상영일수 219일 이상(한국 독립예술영화 상영일수 73일(독립영화 51.1일)), 이 두 가지임.

두 사업의 기획비가 차이가 날 필요가 없으며, 좌석수 기준 역시 동일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두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독립예술영화 운영/설립지원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은, 현재 수많은 콘텐츠가 수입되고 개봉되고 있다는 사실을 독립·예술영화 관객층에게 알리면서 동시에 극장이라는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야 함.



Korean  
Film  
Council

## 제5장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해외 사례 분석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 05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해외 사례 분석

### 5.1 프랑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프랑스의 영화기관인 CNC(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국립영화애니메이션 센터)<sup>16)</sup>가 설립된 이래 지속되어온 프랑스의 영화산업 지원 방식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sup>17)</sup> 직접지원이란 회사와 개인에게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고, 간접지원 방식은 상영(방영) 쿠틀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법으로, 프랑스 영화가 상영/방영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임.

간접지원 중 상영(방영)쿠틀 제도는 방송사들이 방영하는 영화 중 일정비율 이상을 프랑스 영화를 방영해야 하는 제도인. 직접지원 방식은 다시 자동지원과 선별지원으로 나뉘는데, 자동지원 방식<sup>18)</sup>은 프랑스 내 모든 영화관련 사업체에 제공되는 지원으로, CNC 총 지원금의 2/3가 자동지원의 성격을 가짐. 선별지원은 특정 영화의 제작, 배급에 지원하거나 특정 영화관에 제공하는 지원 방식임.

표 54 프랑스의 영화산업 지원 방식

구분	세부 구분	내용	
간접지원	상영(방영) 쿠틀	방송사들이 방영하는 영화 중 일정비율 이상을 프랑스 영화를 방영해야 하는 제도	
직접지원	자동지원	모든 영화관련 사업체에 제공	CNC 총 지원금의 2/3이 자동지원 성격을 가짐
	선별지원	특정영화의 제작, 배급에 지원	특정 영화관에 제공하는 지원 방식

16) <https://www.cnc.fr/>

17) 정후영, 『세계경제』, 2002년 7월, 74p

18) 자동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영사기 장치 구입과 설치, 영사 관련 신기술 사용을 포함한, 영사 조건들에 대한 기술 개선, 장애인 접근권, 영화 상영과 연결된 IT, 음향, 영상 장비의 유지 보수, 극장 프로그램의 홍보에 필요한 기술 장비나 물품, 도시 계획 규칙 및 안전, 위생 규칙 준수 관련, 주차장 건설 및 극장 출입로 개선, 인적, 물적 안전 보장 보안을 위한 장비 구매, 교체, 설치, 유지보수와 같은 건물 정비, 가입 서비스와 같은 회원제 납임금 또는 디지털 마케팅, 전자 통신 등 상영정보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 및 대여, 디지털 마케팅, 전자 통신, 상영 정보와 관련한 로운 방법과 장비의 사용법, 장애인 극장 관람 수용, 디지털 영사 장비의 유지, 보수, 사용을 위한 자원 봉사자 및 직원의 교육 등.

프랑스의 '예술 및 실험영화'에 대한 정의<sup>19)</sup>

-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러나 이를 누릴 관객이 많지 않은 작품
- 영화 분야에서 새로움이나 연구의 특성을 가진, 일명 '조사와 발견'을 위한 작품
- 영화 제작국의 삶을 반영한, 프랑스에서 적은 규모로 배급되는 작품
- '고전'으로 간주되는 예술과 역사적인 흥미를 드러내는 재상영 작품
- 영화예술을 새롭게 하는 단편 작품

2021년 프랑스 예술 및 실험영화 개봉작은 2012년 이후 10년 평균 364.2편(58.4%)를 차지, 관객 수는 약 2,270만 명으로 전체 관객의 24.2%. 2021년에는 극장에서 상영한 예술 및 실험영화는 총 3,459편.<sup>20)</sup>

[표 55]에 따르면 프랑스의 단관 극장의 수는 1,100개로 전체 극장의 54.5%를 차지, 스크린수로는 17.9%를 차지함. 관객 점유율은 8.0%로, 이 단관극장들은 대부분 예술실험영화관임. 8개관 이상을 멀티플렉스로 정의하는 프랑스의 경우 5개 이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이 보유한 스크린의 수가 2,796개로, 멀티플렉스(8개관 이상)가 보유한 스크린수 2,752개를 넘어섬.

	극장수	멀티플렉스 극장 비중	스크린수	멀티플렉스 스크린 비중	스크린 1개당 인구수	스크린 1개당 관객수
2020년	2,041개	멀티플렉스 극장 226개	6,127개	멀티플렉스 스크린 2,677개	인구수 65,124천명	10,641명
		비멀티플렉스 1,814개		전체스크린 6,127개	스크린 수 6,127개	코로나로 인해 1/3로 줄어든 수치임.
비중		11%		43.7%	10,629명	

출처: 일본커뮤니티시네마센터 Film Exhibition Yearbook(2021) 및 CNC<sup>21)</sup>

19) 노철환, 「영화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본 프랑스의 영화예술 및 영화교육 프로그램」, 『영화연구』, 67, 2016  
 20) 노철환, 「프랑스 예술실험영화(관) 지원 제도의 비밀」, 2022년 7월 12일, 부천국제영화제 포럼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 발표자료에서 통계자료만 인용.  
 21) 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ー諸外国との比較(2021)의 자료 인용, <https://www.cnc.fr/documents/36995/153434/Bilan+2021+du+CNC++chiffres+cle%3Fs.pdf/d2d8a913-dc69-d772-40de-5a96441244eb?t=1652802393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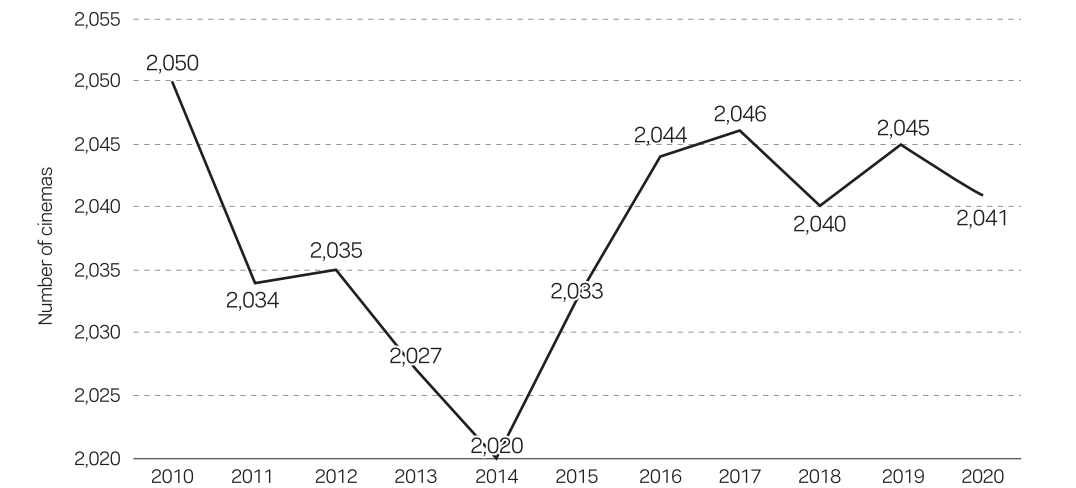
	2020년	2021년	증감율	비고
극장수 변화	2,041개	2,028개	-0,6%	
스크린 수 변화	6,127개	6,193개	+1,1%	
좌석수 변화	1,138,530개	1,146,533개	+0,7%	
멀티플렉스 수 변화	233개	240개	+3,0%	
멀티플렉스 비중	57.3%	59.1%	+1,8 pt	

출처: CNC<sup>22)</sup>

프랑스 관객들은 멀티플렉스만이 아닌 다양한 극장 환경을 경험하고 있음. 영화에 대한 공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프랑스의 사회적 인식이 멀티플렉스 위주의 극장 산업 속에서도 작은 극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임.

프랑스의 극장은 3대 배급사(UGC, 고몽-파테, CGR)가 전체 개봉관의 약 1/3을 차지하고 연간 관객 수는 50%선이지만 비싼 티켓 비용으로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은 80%에 달함.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로서는 MK2가 멀티플렉스 극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술영화를 주로 배급함. 극장 내 카페, 레스토랑, DVD와 영화서적, 영화 굿즈를 판매하는 매장도 함께 운영함.

그림 7 프랑스 극장 수 변화 추이 (2010-2020)



출처: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28833/number-of-cinemas-france/>

[그림 7]과 같이 프랑스의 극장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22) <https://www.cnc.fr/documents/36995/153434/Bilan+2021+du+CNC++chiffres+cle%3Fs.pdf/d2d8a913-dc69-d772-40de-5a96441244eb?t=1652802393385>



프랑스 영화의 정책적 지원 구조는 다양한 인정 등급을 기반으로 구성됨. 등급 인증의 종류: RD(연구와 발견, Research and Discovery), JP(젊은 관객 Young Public), PR(유산과 고전, Heritage and Repertoire).<sup>23)</sup> 예술 및 실험 영화관들은 각각 이 인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음.<sup>24)</sup>

2021년에는 총 1,305개 극장이 인증을 부여받았는데<sup>25)</sup>, 전체 극장의 64.3%를 차지함. 파리 지역(39개 극장), 파리 근교(129개), 오드프랑스 지역(57개), 노르망디 지역(69개), 페이드라루아르 지역(89개), 신 지역-아키텐(180개), 부르고뉴-프랑슈-콩테 지역(73개),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지역(94개), 오베르뉴-론-알프 지역(192개), 옥시타니 지역(157개), 브르타뉴 지역(101관), 상트레발드루아르 지역(44관), 그랑-에 지역(71관), 코르시카 지역(6관), 프랑스령 기아나(1관), 레위니옹(1관).<sup>26)</sup>

인증받은 극장들은 다시 극장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sup>27)</sup> 각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뉨.

상영의무: 평균 32주 이상 예술 실험 영화를 상영해야 함. A와 B등급의 극장들은 300회 이상, C와 D등급의 극장들은 200회 이상, E등급의 극장은 150회 이상 영화를 상영. 휴관하거나 신설된 극장은 26주 이상 상영으로 기준이 완화됨.

[표 56]에 따르면 예술 및 실험 영화관 지원금은 2021년 1,304개관을 대상으로 총 18,344,670 유로(한화 약 245억 원)가 지급됨.<sup>28)</sup>

등급	영화관수	지원금(유로)	지원금(한화)
A	94	4,326,844	575억 원
B	24	941,261	12.5억 원
C	260	4,010,811	53.3억 원
D	222	3,058,778	40.7억 원
E	704	6,006,976	79.9억 원
총합	1,304	18,344,670 <sup>30)</sup>	약 245억 원

출처: AFCAE(Association Française des Cinémas d'Art et d'Essai) 홈페이지에서 인용 및 추가

프랑스는 지원을 받는 예술 및 실험 영화관의 숫자가 많으면서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음. 또한 소외지역의 극장을 우대하고, 취약 영화<sup>31)</sup>를 상영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는 등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음. 이 지원 시스템은 상영회수/관객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화관의 특수성 또한 고려 대상이 되어 지원금이 산정됨.

프랑스의 예술 및 실험 영화관 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s cinéma et d'essai)는 이와 같은 프랑스의 영화관 지원 제도의 중심임. 이 협회는 1955년 출범하였고, 1959년 정부에 의해 공식 협회로 인준됨. 이 협회에 소속된 작은 영화관들이 고전영화, 작가주의영화, 독립예술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하며, 다양한 상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객을 확대하고 있음.

프랑스의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의 대부분은 이 예술 및 실험 영화관에서 개봉함. 수익성이 낮은 영화들이 예술 및 실험 영화관에서 지속적으로 상영될 수 있는 것은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기 때문임.

23) <http://www.art-et-essai.org/7/le-classement-des-salles>

24) <http://www.art-et-essai.org/> 및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2014에서 인용.

25) <http://www.art-et-essai.org/7/le-classement-des-salles>

26) <http://www.art-et-essai.org/7/le-classement-des-salles>

27)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2014. 1그룹 A등급: 도심 인구 10만 명 이상, 주거 밀집지역 20만 명 이상 지역에 위치한 극장. B등급: 도심 인구 10만 명 미만 및 주거 밀집지역 20만 명 이상, 또는 도심 인구 5만 명 이상 및 주거 밀집지역 10만 이상 20만 명 미만에 위치한 극장. 2그룹 C등급: 주거 밀집지역 10만 명 이상에 위치한 1그룹에 속하지 않은 극장. D등급: 주거 밀집지역 2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에 위치한 극장. E등급: 주거 밀집지역 2만 명 미만이거나 농어촌 지역 소재 극장.

28) <http://www.art-et-essai.org/7/le-classement-des-salles>

29) <http://www.art-et-essai.org/7/le-classement-des-salles>

30) 홈페이지 총액으로 제시된 금액과 각 등급별 지원금의 합계에 차이가 있음. 이 차이는 추가지원금 등 별도의 지원금에 따라 달라짐.

31) 예술 및 실험영화 중 취약 영화(films fragiles)란 RD(조사와 발견) 인정등급을 받고 프랑스 내에서 80개 미만의 프린트로 배급되어 개봉하는 영화를 의미하며, 이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자동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을 지급할 때 취약 영화가 상영되는 회수, 상영되는 스크린 수가 모두 고려된다. 영화진흥위원회(2014)에서 인용.

<http://www.art-et-essai.org/actualites/963386/demande-de-classement-art-et-essai-pour-2018>

## 5.2 독일 극장 지원사업

독일은 영화 지원 자금을 조성하여 추천 포인트 제도를 통해 극장을 지원하고 있음.<sup>32)</sup> 독일의 영화진흥기관 및 이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추천제도 및 극장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음.

**독일연방영화위원회(FFA, German Federal Film Board):** 독일연방영화위원회는 독일 영화를 증진하고, 영화산업의 구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 영화산업의 국내 경제적 사안을 보조하고, 독일 영화의 경제적, 문화적 시장 개발과 배급에 대한 기반을 증진함. 아울러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영화지원 방안들을 조정함.

독일연방영화위원회는 영화관사업자와 비디오 배급사로부터 영화세를 징수.<sup>33)</sup> 영화세는 순수익이 7만 5천유로(한화 약 1억 원) 이상일 경우, 개별 스크린 당 연간 순수익의 1.8%~3% 사이로 징수함. 비디오 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순수익의 1.8%~2.3%의 영화세를 징수. 이 영화세는 경제행정법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부가세로, 영화와 비디오 경제의 자립조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금의 일종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사도 독일연방영화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영화진흥제도에 대한 재정에 함께 참여함. 이에 따라 독일연방영화위원회는 매년 약 7,600만 유로(한화 약 1,017억 원)의 예산을 운용.

독일에서는 영화와 관련된 지원금을 추천 포인트를 통해 지급하는데, 독일연방영화위원회는 추천필름 펀딩이라는 자금을 통해 성공적인 독일 영화 제작자들을 지원함. 이 자금은 상환될 필요가 없는 보조금 형태이지만, 새로운 영화의 제작이나 출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

영화의 총 추천 포인트는 독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영화 티켓과 국내외 중요 영화제 및 시상식에서 성공을 기반으로 계산됨. 추천 필름 펀딩에 참여하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포인트 최저값은 장편 영화, 데뷔 영화, 어린이 영화, 다큐멘터리마다 다름.

### 독일의 극장 지원 사업: 시네마 펀딩

#### ① 상영 프로젝트 펀딩

- 극장의 현대화 및 개선, 구조 개선을 하는 경우, 극장 신설의 경우, 한 극장은 최대 20만 유로(한화 2.7억 원), 예외적인 경우 최대 35만 유로(한화 약 4.7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총 금액의 최대 50%를 독일연방영화위원회가 인정하여, 최대 30%는 보조금의 형태로 교부되고, 나머지 70%는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로 배정.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개선의 경우, 적격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할당 가능. 이 경우 최대 35만 유로의 자금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
- 영화관들 간의 특별 홍보, 협력에 대하여 최대 20만 유로를 부여 가능. 단편영화 상영,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장편영화 상영, 영화 교육, 또는 영화관 사업의 자문 비용으로 극장에 대한 보조금을 부여함.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영화 자금 조달 담당 위원회는 1년에 세 번 소집됨.

#### ② 상영 추천 펀딩

- 상영 추천 펀딩은 극장이 자신들의 프로그래밍으로 특별한 상을 받았거나, 독일 또는 유럽 영화의 프로그래밍으로 높은 입장율을 기록한 극장들을 위한 보조금. 이 추천제도의 원칙은, 극장이 관객 모객의 성공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즉, 인센티브 제도와 같음.
- EU국가의 영화, 유럽 경제 지역 협정(EEA)이 원조하는 국가의 영화, 스위스 영화의 입장객까지 포함됨. 이 추천 펀딩 신청에 필요한 입장율과 시장점유율은 매년 2월 중순 독일연방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 ‘상영(시네마) 지원금/추천 펀딩’이라는 카테고리로 게재되어 안내함.

32) <https://www.ffa.de/cinema-funding-1.html>

33) <https://www.ffa.de/ffa-overview-1.html>

### 5.3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의 지원 기금

#### ① 일본

극장지원이 전무했던 일본이지만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통해 극장업을 지원함. 2020년 6월 통과된 2020년도 2차 추경에서는 문화청의 ‘문화예술활동 긴급종합지원 패키지’에 약 560억 엔(한화 5,600억 원)이 결정되었고 그 중 506억 엔(한화 약 5,060억 원)의 예산이 ‘문화예술 활동 지속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쓰임. 이 지원 대상에 미니시어터와 라이브하우스가 포함됨. 미니시어터 운영자 역시 경제산업성이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속화 보조금의 대상이 됨. 하지만 이는 긴급 지원으로, 장기적으로 미니시어터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실현된 것은 아님.

문부성 산하 문화청이 예술활동 전반에 지원금을 교부하여 영화 프로그래밍을 기획하는 영화관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ARTS for the future)를 신설.

#### ② 영국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영국 내 극장과 문화시설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국 정부는 문화시설 지원기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 기관과 회사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교부함. 이 지원금은 인건비에도 사용 가능함. 2020년 8월부터 영국의 문화회복기금(Culture Recovery Fund)은 영국 전역의 약 5,000개 조직과 단체에 15억 7천만 파운드(한화 약 2조 5천억 원)를 지원.<sup>34)</sup>

2021년 초 영국 내 207개의 독립 영화관은 영국영화협회(BFI)가 할당한 3천만 파운드 중에서 1차로 1,600만 파운드(한화 약 25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음. 총 2,10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문화회복기금으로부터 받았고, 그 중 83%가 런던 밖에 있는 영화관들임. 또한 2022년에는 독립 영화관들이 문화회복기금 2차 신청으로 총 1,400만 파운드(한화 약 22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음. 자격을 갖춘 영화관들은 안전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극장이 직원과 관객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 안전 조치 구현을 위한 즉각적인 비용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보조금을 통해 극장을 재정적으로 안정시키고 더 큰 규모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돕기 위한 것.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국의 문화회복기금은 수백 개의 독립 영화관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총 3,400만 파운드(한화 약 536억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영국의 상영업체들을 지원함. 이 기금 덕분에 영국 내에서 코로나로 인해 직접 폐업한 영화관은 극소수에 불과함.

kofic



34) <https://www.bfi.org.uk/news/independent-cinemas-awards-culture-recovery-fund>



Korean  
Film  
Council

## 제6장

#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선 방안 제안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 06

##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선 방안 제안

### 6.1 단기적 개선 방안(2023년 사업계획 반영)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은 처음 시작된 2002년 이후부터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음. 독립·예술영화의 안정적 상영 기반 및 지역의 영화문화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동 사업이 일정 성과를 보인 것도 사실임.

동 사업을 통해 한국독립영화 의무상영쿼터 강화, 지원금 내 홍보/프로그램비 집행비율 의무화, 전용관 운영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에 따른 차등 지원금 지급 등 변화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수적 정체 등 문제가 남음.

2022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22년 7월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관계자들 간에 컨센서스가 형성된 지점들은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인센티브 기준 변경, 지원금 사용처 확대, 극장에 대한 보상제도 개발, 멀티플렉스 전용관과 단관 전용관들의 투 트랙 지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100개 확대 등이었음.

우선 단기적인 차원에서 차기 연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의 변화가 필요함. 심사기준 개선사항 및 인센티브 점수제를 활용하여 동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들을 선정하고 지원금이 전용관의 직접 운영에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별 전용관 차등 배분이 더욱 필요함.

#### 1)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평가지수 개선: 인센티브 지수의 개선 및 확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포함

##### ① 지역 인센티브 지수 상향 조정

— 경기도 안산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영화관은 존재하지 않음. 안산의 명화극장은 예술-클래식 영화전용관이면서 동시에 다문화 인구를 위한 극장이기도 함. 동남아시아 출신 관객들을 위하여 대관을 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하면서 이들 지역 극장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 이러한 문화 교류는 지역 문화의 다양한 발전에도 기여함.

현안			
심사영역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사업주체 (100점)	사업수행능력(40점)	20점	• 예술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 - 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독창성 등
		20점	• 상영관 홍보 실적 - 홍보 실적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영관 활성화 및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지원파생 효과(10점)	10점	•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사업계획(50점)	20점	• 예술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 - 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독창성 등
		30점	• 상영관 홍보 계획 - 홍보 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영관 활성화 및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인센티브	사업수행능력(80%)	40%	• 예술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 - 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독창성 등
		40%	• 상영관 홍보 실적 - 홍보 실적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영관 활성화 및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지원파생 효과(20%)	20%	•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총점 (100점)			

개선(안)			
심사영역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사업주체 (100점)	차년도 사업계획(40점)	40점	• 프로그래밍 및 홍보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영관 활성화 및 신규관객 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구성 인력의 전문성
		20	• 상영관 홍보 실적 - 홍보 실적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상영관 활성화 및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10	• 독립예술영화 관람객 점유율 및 연간 독립예술영화 상영율 • 독립예술영화 의무상영쿼터 초과상영 실적	
	지원 파생 효과(20점)	20점	•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 지역 친화적 사업 계획의 구체성
인센티브	지역우선	50%	• 수도권 제외 지역 배점 우선 •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사업수행능력	30%	• 상영실적: 독립예술영화좌석점유율 - 상영관 활성화 및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 전년도 대비 운영 개선 실적(관람객수, 입장권 매출)
	안정적 상영 지원	20%	• 임대사업자 우선 배점 지원
총점 (100점)			

-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니치 마켓(Niche market, Narrow Audience)의 타깃 관객들을 초점화해서 공략하는 방법임. 보편성 말고 특이성에 주목하여 관객에 맞춘 영화를 찾아내 상영하는 방식. 지역 극장들은 해당 지역의 인구분포를 확인하고 그 인구가 선호하는 영화를 함께 선별해 가는 전략을 세운다고 가정하면 지역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이 절대적임.
- 이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평가 지표에 삽입할 필요가 있음.
- 표와 마찬가지로 지원파생효과 및 지역 우선 인센티브가 필요함. 문화사각지대 해소, 신규 관객층 확보 등의 과업을 부과하여 가산점을 주거나 정성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② 관객점유율 및 독립·예술영화 상영에 대한 배점 상향 조정

- 관객점유율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취지는 독립·예술영화의 보급을 확대하고 더 많은 관객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관객점유율은 영화관의 환경 및 인지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관객 선호도와 영화관 운영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명시적인 지표임. 점유율 점수를 10점 추가하고, 매년 관객점유율의 증감 추이를 인센티브 지표로 도입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 관객발굴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음. 관객 추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함으로써 관객 발굴을 위한 전용관들의 노력을 끌어올 수 있음.

2) 시설 개보수 및 공간 개선 지원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노후화는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임. 코로나19 기간 중이 시설 개보수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음. 매년이 아닌 시기를 한정하여 운영 보조금 중 20%를 시설 개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5년에 한번 정기적인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전체 지원이 힘들면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독립·예술영화관의 설비 투자는 개별 극장, 특히 임대 극장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며 공격 지원이 필요함.

공간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독립·예술영화관이 처한 입장은 다름. 극장소유주<sup>35)</sup>와 임대운영을 나누어 지원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임대일 경우 건물주가 공간의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극장 임대료를 증지하면 폐관해야 할 수도 있음<sup>36)</sup>.

현행 운영 지원 정책은 영화관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시스템임. 장기적으로 소진성 예산인 운영 보조금 보다 하드웨어나 시스템 구축에 집중 지원을 하는 방향이 필요.

35) 광주극장 등을 들 수 있다.

36) 인천 미림극장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멀티플렉스와 단관 극장의 상영 포맷을 통일하여(상향 조정하여) 관객들의 관람 수준의 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음. GV와 같은 행사 지원을 통해 관객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3) 지역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한 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원

현재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전무한 지역의 경우, 멀티플렉스 예술영화전용관 및 작은영화관을 활용하여 독립·예술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멀티플렉스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이 없으므로,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함.

현재 모든 전용관에 대한 보전율은 좌석점유율의 20%로 고정되어 있음. 좌석점유율 보전율을 높여서 예술영화유통 확대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함.

예시: 전체 전용관에 대한 보전율을 좌석점유율의 30%까지 인상하고, 멀티플렉스 예술영화전용관에는 임대료 및 프로그래밍 기획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상영회차 당 30% 이상 추가 좌석점유율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전용관의 메리트를 확대시키면서 독립·예술영화 쿼터인 219일(한국독립영화 51.1일)을 확보할 수 있음. 멀티플렉스에 대한 지원은 현재와 같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한하고, 다른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지자체 중복이 없는 곳을 위주로 지원하는 방침을 고수함.

예시) 좌석점유율 지원금 (100석 이상 기준) : 26,280,000원

\* 산출근거 : 좌석수에 따라 지원금 변동

- 100석 이상 : 100석 × 30% × 219일 × 4,000원(부율)

- 100석 이하 : 00석 × 30% × 219일 × 4,000원(부율)

좌석점유율 45%일 때: 추가 15%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13,140,000원

- 100석 이상 : 100석 × 15% × 219일 × 4,000원(부율)

## 6.2 중·장기적 개선방안(2023~2033년 로드맵) 제안

20년을 맞은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20년 전의 기준을 개선해야 할 시기임. 2022년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한국 영화산업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함. 지원 사업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지원 모델의 개발이 있어야 함.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극장 수는 최근 수년간 늘어나지 않았고 지원금은 여전히 설비투자에 사용할 수 없음. 아울러 새로운 극장 사업자가 독립,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에 진입하고자 하지도 않음. 새롭게 설립되는 극장이라도 대부분 수도권에 한정되며 특히 지역에서 새로운 극장 설립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장기적 개선방향의 로드맵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1) 설립지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100개 설립 목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스크린 100개 목표는 2004년 「예술영화관 지원 정책 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음. 기준은 달라졌지만 현 시점에서 이 논의는 매우 유효함.

당시 100개 스크린 목표 설정이 된 근거는 다음과 같음.<sup>37)</sup>

- ① 예술영화관객 조사 결과, 잠재 관객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면, 관람으로 이어지는 최대 예술영화 관객수요는 서울 7%, 전국 3% 선으로 판단.
- ② 산업적 측면에서 일반 개봉 평균 배급규모인 100개관 정도로 개봉이 가능해야 함.
- ③ 영진위 지원기준 순제작비 최고액(15억 원)의 예술영화 손익분기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 5개관 이상 동시개봉 한 후 좌석 점유율 30%를 유지하고 2주간 상영하여야 함.
- ④ 예술영화 시장에서 예술영화관들 체인의 시장 기여도 및 분담율을 고려할 때, 10% 정도가 예술영화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최소 한국영화 역할 분담의 비율임.

당시 예술영화관 체인은 지금 사라진 상태이며, 현재는 멀티플렉스의 예술영화 전용관까지 합쳐도 69개 스크린만 남은 상태임. 2004년 당시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는 50편이었지만 2021년에는 500여 편에 이룸. 이렇게 증가한 아트하우스 영화시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 남은 69개 독립·예술영화전용관으로는 증가한 콘텐츠를 모두 개봉·상영하기 힘든 구조임.

또한 현재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수는 인구 대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임. 인구 10만명당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스크린 1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 예술영화전용관 100개 건립이 필요함.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문화 공공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sup>38)</sup>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화문화향유 정책의 일환으로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음. 특히 지역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할 때, 지역의 문화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영화진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공재로서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설립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임.

37) '예술영화관 지원정책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p9, 2004

38)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rsch/findPublishIndexInfoDetail.do?boardNumber=40&flag=1&pubSeqNo=2824&idxSeqNo=6703>

지역	도서관 수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총방문자수	1관당 방문자수
전국	1,172	38 (3.4)	89,577,048	76,431
서울	188	8 (4.4)	19,927,153	105,995
부산	47	3 (6.8)	5,699,121	121,258
대구	44	1 (2.3)	3,701,332	84,121
인천	55	2 (3.8)	4,540,958	82,563
광주	24	1 (4.3)	2,032,998	84,708
대전	25	-1 (-3.8)	1,920,310	76,812
울산	19	0 (0.0)	2,689,161	141,535
세종	12	1 (9.1)	491,500	40,958
경기	286	9 (3.2)	25,497,567	89,152
강원	59	1 (1.7)	3,094,242	52,445
충북	50	2 (4.2)	1,902,331	38,047
충남	63	0 (0.0)	2,933,898	46,570
전북	63	4 (6.8)	2,205,539	35,009
전남	71	1 (1.4)	2,665,692	37,545
경북	69	3 (4.5)	3,973,783	57,591
경남	75	3 (4.2)	5,381,424	71,752
제주	22	0 (0.0)	920,039	41,820

출처: 통계청 자료 2021

전국의 도서관은 1,100여개가 넘고 지자체 기준 가장 적은 곳이 12개관임. 한국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도서관과 같은 문화공공재로서 역할을 하며 교육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함. 영화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필요함.

영진위 5개년 장기 목표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100개 설립으로 규정하고 2027년까지 전국에 약 100개의 독립·예술영화 스크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면, 운영 지원 사업과 함께 설립 지원 사업이 동시에 필요함.

현재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없는 자치단체, 예를 들어 원주, 청주, 제주, 세종 등 지역의 단관극장들을 전용관으로 확대하여 모색 가능.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2023년 새롭게 개관할 예정이며, 새롭게 문을 여는 단관 극장들을 전용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섭외가 필요함.

2023년부터 독립·예술영화전용관 100개 설립 관련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다양한 사전 조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함. 향후 5년간 운영계획 수립, 지역 영화관 및 멀티플렉스 관계자 미팅, 지역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등이 진행되어야 함. 아울러 공간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독립·예술영화관들 및 작은 영화관들의 공간적, 기술적 표준화 실태조사 및 현황 조사가 필요함. 전국적으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확대를 도모해야 함.

독립·예술영화전용관 1개 설립을 위하여 1년 1.5억 원(지자체 예산 별도)의 예산을 배정한다면(2016년 3개관 설립 지원 시 총 6억 원 지출), 1년 5개관 설립 지원을 위하여 7억 원 예산 소요. 위탁 운영 및 멀티플렉스의 전용관 섭외를 함께 진행한다면 더욱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을 확대할 수 있음.

## 2) 영화할인권 사업을 전용관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으로 시행했던 영화할인권 사업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전용관 사업을 확대함.

비멀티플렉스 영화관 할인권 지원 규모: 총 66,650매, 399,900,000원 규모. 전체 영화관 할인권 1,333,000장 중 비멀티플렉스 영화관 39 곳에 5%를 우선 배정. 해당 비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의 2019년도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은 2.2% 수준임. 비멀티플렉스 영화관 117개 중 39개 극장 대상으로 2019년 매출액 비중을 적용하여 지원금 배정.

총 39개 비계열 영화관이 지원을 받음.

NO.	2019년 39개 극장 총 매출액 대비 비중	할인권 상한매수 (매)	입장료 할인권 지원금 상한액 (원)	비고
비계열1	20.26%	13,503	81,020,800	
비계열2	11.42%	7,608	45,648,929	
비계열3	8.90%	5,930	35,578,116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4	7.33%	4,886	29,315,550	
비계열5	7.30%	4,865	29,191,753	
비계열6	5.94%	3,956	23,738,576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7	2.67%	1,783	10,695,043	
비계열8	2.66%	1,774	10,643,608	
비계열9	2.41%	1,610	9,657,552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10	2.31%	1,541	9,243,389	
비계열11	2.26%	1,505	9,030,919	
비계열12	2.23%	1,489	8,935,807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13	2.20%	1,466	8,794,636	
비계열14	1.73%	1,153	6,917,083	
비계열15	1.65%	1,098	6,587,590	
비계열16	1.48%	984	5,902,774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17	1.43%	956	5,734,335	
비계열18	1.37%	915	5,488,705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19	1.21%	805	4,830,566	독립·예술영화전용관

NO.	2019년 39개 극장 총 매출액 대비 비중	할인권 상한매수 (매)	입장료 할인권 지원금 상한액 (원)	비고
비계열20	1.16%	776	4,656,841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21	1.07%	711	4,265,482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22	1.03%	684	4,104,143	
비계열23	0.96%	643	3,856,082	
비계열24	0.94%	629	3,776,698	
비계열25	0.91%	606	3,638,050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26	0.82%	545	3,271,836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27	0.82%	545	3,267,559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28	0.81%	539	3,232,085	
비계열29	0.67%	450	2,698,760	
비계열30	0.59%	395	2,371,688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31	0.57%	381	2,287,443	
비계열32	0.53%	351	2,105,540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33	0.46%	309	1,855,632	
비계열34	0.46%	304	1,823,138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35	0.44%	290	1,742,747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36	0.38%	255	1,532,323	
비계열37	0.26%	174	1,041,132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38	0.20%	134	803,867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비계열39	0.15%	102	613,224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합계	100.00%	66,650	399,900,000	

※ 계산식 : 66,650장 × (해당영화관매출÷39개 극장 총매출) = 할인권 매수×6,000원 = 상한액

동 사업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관객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함. 아울러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신설을 위한 기존 극장 섭외 시 지원사업으로서 제시 가능함.

지역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신설된다면 관객들에게 더욱 저렴한 영화관 티켓을 제공할 수 있음.

### 3) 영화관에서의 영화 교육의 추진

장기적 관객 확대를 위하여 독립·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도서관에서 도서교육 및 문학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관을 활용한 영화 교육 사업을 통한 장기적인 영화 관객 발굴 계획 필요. 향후 5년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핵심은 관객 확대와 발굴에 있음. 타깃 관객 교육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사업이 ‘영화’가 아닌 ‘영화관’에 대한 지원, 공간과 문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때, 잠재 관객을 교육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음. 유럽의 아트하우스 극장들은 이미 공공 교육의 의미를 환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 옴.

지속적 영화 교육을 통해 영화 관람 문화 의식의 성장을 유도해야 함. 영화는 어디서든,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으므로 영화로 관객을 유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극장이라는 공간의 확대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적극적 관객 확대가 필요함.

#### ① 세대별 관객 교육

세대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모델링, 전문 강사 활용 방안 등을 체계화하여 각 독립·예술영화관들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독립·예술영화관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영화를 상영하는 것만이 아닌, 관객 교육 프로그램을 각 세대, 계층별로 특화시켜 개발해야 함.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화 교실, 중년 관객을 위한 교양강좌, 노인(실버영화관)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화 교육 프로그램 준비가 없는 독립·예술영화관의 미래가 없음. 관건은 기획과 프로그래밍, 인력, 비용. 독립·예술영화관은 영화를 보고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함.

**예시 1. 프랑스 CNC가 운영(지원)하고 있는 영화교육 프로그램:** 1) 학교와 영화관(School and Cinema), 2) 영화관의 중학교 (Middle school in Cinema), 3) 영화관의 고등학생과 견습생(High School Students and Apprentices at the Cinema).<sup>39)</sup> 그 중 1) ‘학교와 영화관’은 ‘Les enfants de cinéma’ (영화관의 아이들, 1994년 설립)라는 단체가 운영. CNC, 영화관, 문화사업지역국(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의 지원을 받음. 이 프로그램은 만 4세부터 만 11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에게 영화의 문을 열어주는 예술/교육 프로그램.<sup>40)</sup> 목표는 어린이들이 영화관에 가도록 장려하는 것, (문화적 관행과 공유의 장소를 익히도록 함) 발견되고 사랑받을 예술로서 영화에 대한 진정한 접근을 시작하는 것. ‘영화관의 아이들’은 CNC, 프랑스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육용 자료를 만들기도 함. 2)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네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 CNC, DRAC을 포함하는 프랑스 문화부, 교육부, 지자체, 영화계 관계자(영화관, 배급사). 해당 학교의 장과 교사가 사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CNC는 2015년 기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3백만 유로(한화 약 41.2억 원), 지역 협력 공교육 지원 사업에 1.8백만 유로(한화 약 24.7억 원) 지출.<sup>41)</sup>

39) <https://transmettrelecinema.com/>

40) <https://www.culture.gouv.fr/en/Actualites/Les-Enfants-de-cinema-un-atout-pour-l-education-artistique-et-culturelle>

41) 김민재, 「프랑스 정규 교육과정 내의 영상교육」, 영화진흥위원회, 2017



— ‘영화관의 아이들’의 성과<sup>42)</sup>

- 프랑스 전국 1,200개 영화관 네트워크에서 4세부터 11세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
- 88개의 영화 타이틀 보유: 교육용 교재로 사용 가능
- 762,000명 이상 학생 참여
- 32,000명 이상 선생님 참여
- 10,000개 이상 학교 참여
- 학교와 영화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5개 부처 및 5,500개 자치단체
- 200만 명 이상의 입장객 확보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영화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어린이 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있으며 어린이, 가족 영화의 보급에 매우 적극적임.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극 장편영화 등이 망라되며, 어린이의 감성과 언어습관, 영상 이미지 습득방식을 고려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광범위하게 상영됨.<sup>43)</sup>

한국의 교육산업은 영화산업을 넘어선 광범위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수많은 잠재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

세대 별로 다른 영화교육 내용과 기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 가능. 아트하우스모모, KU씨네마테크 등에서는 대학과 연관한 교육 프로그램, CGV압구정 등에서는 중장년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멀티플렉스 예술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니어 영화 모임, 어린이, 청소년 영화 교육 등이 가능함.

② 중·고등학생 ‘영화 교과과정 프로젝트’ 시작

2022년 현재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과 과정은 여전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자율학기제로 운영됨. 이 시기 43만 명의 중학교 1년생의 청년 잠재 관객을 타깃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다양성 영화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는 음악, 미술, 체육이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임. 최근 중·고등학교에는 방과후수업으로 영상창작 수업, 영화 제작 글쓰기 등과 연계된 영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됨.

중학교의 많은 교사들 역시 영화를 교육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영화를 통한 흥미유발, 커리큘럼 개발을 필요로 함.

블록버스트 위주의 영화 관람이 대부분임.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찾는 중·고등학생은 거의 없음.<sup>44)</sup>

42) <https://www.culture.gouv.fr/en/Actualites/Les-Enfants-de-cinema-un-atout-pour-l-education-artistique-et-culturelle>

43) 장병원,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사업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2012

44) 『2020-2021년 영화소비자 행태 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22, 159p.

‘영화 교과과정 프로젝트’: 영화 교과과정 프로젝트란 독립·예술영화관(영화진흥위원회)과 중·고등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해 영화관을 교실로 삼은 영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즉 수업을 영화관에서 운영할 수 있음. 영화를 매개로 하는 수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영화들을 극장 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 자체를 지역 내 극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획하는 것. 즉,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임.

독립·예술영화관은 영화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영화관이라는 공간은 영화 관람이라는 체험을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임.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 영화관의 관람 경험이 줄어들었다가 제한이 풀리자 극장 관객수가 증가한 사실을 보면 단체 관람에 대한 관객들의 열망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공동체 내 영화관의 역할은 매우 큼.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약간의 강제성과 의무성을 띤 수업은 중·고등학생들을 독립·예술영화관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 영화 수업은 영화제와 같은 이벤트 성이 아닌 학기제 또는 연례과정으로 기획되어야 함.

**예시 1.** 인천미림극장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직업연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인천교육청에서 주변 학교와 미림극장을 직접 연결하여, 중학생들의 직업체험을 미림극장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현재 이 수업은 한 학기에 한번 학생들이 견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영화관으로서는 주변 5-6개의 학교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정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됨. 즉 이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학교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영화연계 수업이 학교 교과과정으로 가능함.

**예시 2.** 영국에서는 영화 및 미디어 과목이 세컨더리 스쿨의 10학년부터 포함됨. 세컨더리 스쿨에 포함된 영화 및 미디어 과목은 중학교 졸업시험 격인 GCSE 과목 중의 하나로 포함됨. 학생들은 GCSE 과목 중 하나로 영화 또는 미디어 과목을 선택해서 수료할 수 있으며 GCSE 이후에는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 격으로 AS와 A 레벨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임.<sup>45)</sup>

영화진흥위원회의 교육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역시 전문가 교육뿐만 아니라 관객확대 교육 커리큘럼을 추가하여, 영화관 수업이 정규 교육 커리큘럼으로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업이 가능함. 영진위의 영화아카데미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 방과후수업뿐 아니라 정규 학기 과정으로 직업체험 수업, 지속적인 텍스트 읽기 수업이 추가 가능함.

45) 최상희, 『영국 영화/미디어 공교육 시행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7

독립·예술영화관들도 교과과정 수업 진행을 위해 3~4 시간을 빼야 하며, 상영회차 감소 부분은 영진위의 지원이 필요함.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필요. 강의진행 대관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급하거나 교육청에서 강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 예산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함께 마련하는 방안 필요. 영진위에서는 영화 교과과정 운영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 방안을 고려 가능. 한 학기 전에 강좌 개설 논의, 교육 주제, 강사 확보, 중·고등학교에 맞는 영화 텍스트를 찾아 저작권이나 비용을 전용관 운영자와 영진위에서 해결하는 방식.

중·고등학생들에게 한국 단편영화, 독립영화를 텍스트로 삼아 커리큘럼 제작이 가능. ‘단편영화 제작,’ ‘독립영화의 미학’ 등의 강좌를 시작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여 영화제작까지 이어지는 수업을 진행하여 해당 극장에서 자신의 영화를 직접 상영/발표하는 수업이 가능함.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만들고, 그것을 상영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 4) 공공라이브러리 구축 및 운영

영화 교과과정 수립을 위해서는 공공 라이브러리의 논의가 필요함. 현재 영화 교과과정 수업 중 독립·예술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하기 위한 HD나 DVD, 블루레이 등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 예술 지원 고려 필요. 영화교재 및 교과서에 삽입될 수 있는 영화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면 해당 영화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교육청과 영진위가 공동으로 해결하여 수업에 활용하도록 해야 함.

다년간 해외 공관들이 한국영화를 해외 한국문화원 등지에서 상영하기 위해 판권을 구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교육용 영화의 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임. 독립·예술영화전용관에서 사용할 교육 교재로서 공공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관 지원사업과 같이 기획되어야 함.

예시 1. 프랑스의 <http://www.transmettrelecinema.com>. 프랑스 CNC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영화자료 및 수업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영화라이브러리. 학교와 영화관, 영화관의 대학, 영화관의 중고등학생과 견습생 등의 프로그램을 위한 모든 영화 자료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음. 88개의 타이틀 외에도 매년 추가로 교재용 영화를 제공함.

예시 2. 영국영화협회(BFI)의 인투 필름(Into Film)은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화(영상) 등의 자료 제공뿐 아니라 영화 및 미디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영화/미디어 공교육 분야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영화/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sup>46)</sup> 인투 필름은 약 12,600명의 교육 전문가와 청소년 지도자들을 교육해 이들이 커리큘럼 (영화 과목 포함) 전반에서 영화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게 만들었고 16만 1,000개 교육용 자료 세트가 다운로드 됨. 이 자료는 필름 클럽 내에서 주로 사용 가능한 선정된 영화 카탈로그로 지원되는 워크시트, 교육 계획 및 발표와 연계된 커리큘럼부터 영화 토론 가이드까지 포함됨.

46) 최상희, 「영국 영화/미디어 공교육 시행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7, 4~5, 8p.

2022년을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100개 설립 및 관객 확대를 위한 원년으로 설정하여, 교육부와 연계한 기초 문화교육으로 영화를 중·고등학교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영화관과 주변학교를 중심으로 기획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음.

공공 라이브러리 조성을 위한 자료 수집, 국내외 단체와 협력하여 논의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교과서를 만드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영화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가를 육성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세대별 교육 프로그램은 영화관 별로 별도로 진행해도 좋지만 영화 교과과정 수립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나와서 전체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텍스트를 마련해 놓는 것도 방안임.

예시 3. 미국의 텍사스주립대학 오스틴(Univ. of Texas at Austin)에서는 대학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학과(RTF) 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독립, 예술영화 미디어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소장하고 있음. <https://rtf.utexas.edu/rtf-media-library> 대학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영상은 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수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영상은 이 사이트에 신청하면 운영자가 구매하여 비치함. 비용은 모두 학교가 부담함. 이 사이트에는 <미나리>부터 최근 전세계 영화제에 출품된 단편영화들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음.

영진위 혹은 교육청에서 교육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도록 공적 단체가 구축해야 하며, 독립·예술영화관 운영이 프로그래밍과 교육 사업을 위주로 짜일 수 있음. 독립·예술영화전용관만의 사업이 아닌 시네마테크 전용관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 가능.





Korean  
Film  
Council

## 제7장 결론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 07

## 결론

현재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전용관 지원수는 30개 내외이며, 인센티브 제도는 기본지원금 85%를 지원하고 전용관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0~30%까지 4단계로 차등하여 지급함. 지원 금액의 20% 이상을 관객 개발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래밍 비용으로 사용토록 규정함. 현행 73일에 해당하는 한국예술영화 의무상영 일수에 더하여 한국 독립영화 상영일 수가 최소 51.1일 이상이어야 하는 한국 독립영화 쿼터가 추가됨.

영진위가 지원하는 예술영화전용관은 2002년 2개로 출발하여, 2021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전체 30개까지 늘어남.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이 20년째를 맞이하는 2022년의 상황에서, 해당 극장들은 안정적으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기반이 되어 왔지만,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고, 전용관의 숫자가 담보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음.

영화 콘텐츠의 숫자가 10년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고 독립·예술영화 개봉관이 부족한 상황임.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확대 필요, 시장 환경 변화, 관객의 관람행태, 극장 환경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운영 지원 사업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함.

전국의 공공 도서관이 확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공공재로서의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 확대를 위하여 독립·예술영화전용관 100개 설립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하여 독립예술영화관의 입지와 적절한 극장들을 찾아 설득하는 유인작업을 통해 더 많은 사업 파트너를 모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공공재로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확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극장들을 위주로 극장을 지원하여 영화 관객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음.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확대 및 이와 연계한 영화 교육 과정 확대가 가능함. 독립예술영화관과 상영작품은 시네마 리터러시, 영화비평 등 청소년·시민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영화학교이자 교과서이기도 함. 교육 사업이야말로 문화공공재로서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을 활용하고 공간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 영역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이 출범한 2002년과 달리, 2022년에는 영화의 다양성만큼이나 영화관의 다양성이 요구됨.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관객들은 2000년대 관객과는 다르며, 영화를 보러가는 것은 특정한 영화를 보는 행위만이 아닌 공간을 경험하고 문화를 즐기는 행위임. 독립·예술영화관을 프로그래밍한다는 것은, 문화적 체험을 디자인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영화 굿즈 뿐만 아니라 영화관 굿즈가 필요한 시대임.

향후 10년 한국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정책 로드맵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실현을 위하여 공청회나 포럼 등의 공식적 논의가 필요함. 정책 단위와 독립·예술영화관, 작은영화관 운영주체, 멀티플렉스 예술영화관들과의 적극적 소통 필요.

독립·예술영화관들은 독립·예술영화 관객들의 취향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장소성과 공간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 있음. 특히 지역 공간의 경우 특색과 정체성을 가진 영화관을 만들어 관객을 확보해야 함.

kofic



##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김민재, 『프랑스 정규 교육과정 내의 영상교육』, 영화진흥위원회 통신원리포트, 2017
- 노철환, 『영화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본 프랑스의 영화예술 및 영화교육 프로그램』, 『영화연구』, 67, 2016
- 노철환, 『프랑스 예술실험영화(관) 지원 제도의 비밀』, 2022년 7월 12일, 부천국제영화제 포럼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안> 발표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관 지원정책 연구』, 2004
- 영화진흥위원회, 『2019 한국영화산업 결산』, 2020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문화 공공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한국영화』, 2021
-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2014
- 영화진흥위원회, 『2020-2021년 영화소비자 행태 조사』, 2022
- 장병원,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사업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2012
- 정후영, 『프랑스 영화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 2002년 7월
- 최상희, 『영국 영화/미디어 공교육 시행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통신원리포트, 2017

### 인터넷 자료

- 통계청 자료 2021
- 영화진흥위원회 사업 자료
- 영화관통합전산망 누리집
- <http://www.art-et-essai.org/7/le-classement-des-salles>
- <https://www.bfi.org.uk/news/independent-cinemas-awards-culture-recovery-fund>
- <https://www.cnc.fr/>
- <https://www.culture.gouv.fr/en/Actualites/Les-Enfants-de-cinema-un-atout-pour-l-education-artistique-et-culturelle>
-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49406/EPRS\\_BRI\(2020\)649406\\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0/649406/EPRS_BRI(2020)649406_EN.pdf)
- <https://www.ffa.de/cinema-funding-1.html>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28833/number-of-cinemas-france/>
- <https://transmettrelecinema.com/>
- <https://rtf.utexas.edu/rtf-media-library>
-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rsch/findPublishIndexInfoDetail.do?boardNumber=40&flag=1&pubSeqNo=2824&idxSeqNo=6703>

## 부록



독립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개정 2021. 6. 2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p><b>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b></p> <p>제3조(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영화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술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배급지원 작품</li> <li>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1% 이내인 영화형식의 작품(단편영화, 실험영화 등)</li> <li>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1% 이내인 국가의 작품. 단, 개봉 당시 100개관 이상 동시 개봉인 경우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4. 별표 1에 해당되는 주요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및 수상작품</li> </ol>	<p><b>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b></p> <p>제3조(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로 자동 인정하고, 사후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소관 부서는 확인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소위원회에 해당 영화를 심사 회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및 개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li> <li>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1% 이내인 영화형식의 작품(단편영화, 실험영화 등)</li> <li>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1% 이내인 국가의 작품. 단, 개봉당시 100개관 이상 동시 개봉인 경우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li> <li>영화진흥위원회 당해 연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 사업 항공권 지원 대상 영화제, 직전년도 3개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대상 영화제 상영 및 수상 작품</li> </ol>
<p><b>독립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b></p> <p>제3조(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화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의 독립영화 제작 및 개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li> <li>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역 영상위원회 등)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li> <li>별표 1에 해당되는 국내 개최되는 독립영화제(단편영화제, 국제영화제 등의 독립영화 부문 포함) 상영 및 수상 작품</li> </ol>	<p><b>독립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b></p> <p>제3조(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화에 대해서는 독립영화로 자동 인정하고, 사후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소관 부서는 확인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소위원회에 해당 영화를 심사 회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및 개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li> <li>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역 영상위원회 등)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li> <li>별표 1에 해당되는 국내 개최 독립영화제(단편영화제, 국제영화제 등의 독립영화 부문 포함), 직전년도 3개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육성 지원 사업 대상 영화제(단, 시상식 행사는 제외한다.) 상영 및 수상 작품</li> </ol>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연 구 원 김수현(교토대학 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자 문 최낙용(영화진흥위원회 위원)  
김이석(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동의대 영화학과교수)  
노철환(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  
원승환(인디스페이스 관장)  
강민구(대전아트시네마 대표)  
조성진(CJ CGV 전략지원 담당)  
강기명(트리플픽처스 대표)  
장건재(모큐슈라 대표)

기획/진행 한인철(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팀장)  
곽서연(독립예술영화지원팀 대리)

발 행 인 박기용

발 행 일 2022년 11월

I S B N 978-89-8021-217-0 (93680)

---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우동)

전화(051)720-4774 / 홈페이지 www.kofic.or.kr